

《몽량록(夢梁錄)》 역주(譯註)*

— 권오(卷五) 하(下)

金敏鎬**

<목 차>

8. 황제가 태묘(太廟)로 돌아가 머물다 신주(神主)를 모시고 방을 나온다
9. 황제가 명당(明堂)의 재전(齋殿)에서 인사(禮祀)의 의식을 행하다
10. 명당(明堂)의 제사가 끝나면 성문 위로 올라가 대사면을 내리다
11. 교사(郊祀)의 해, 천자가 청성(靑城)의 단성전(端成殿)에 머물며 교사(郊祀)의 예(禮)를 행하다

8. 황제가 태묘(太廟)로 돌아가 머물다 신주(神主)를 모시고 방을 나온다

황제는 평두런(平頭輦)을 타고 태묘(太廟)의 재전(齋殿)으로 돌아가 묵었다. 그 근위병(近衛兵)인 철기병(鐵騎兵)들은 모두 태묘로 옮겨 와 서석산(瑞石山)을 둘러싸고 앞뒤에서 호위하였다. 천무(天武), 금오(金吾), 무훈(武勳), 우림(羽林) 등의 병사들 역시 함께 늘어서서 호위를 하였다. 육군(六軍)의 의장(儀仗)과 노부(鹵簿)는 태묘 뒤로 옮겨 와 주둔을 하였고, 밤에는 여정문(麗

* 《몽량록(夢梁錄)》 권일(卷一), 권이(卷二), 권삼(卷三) 역주(譯註)는 각각 《중국어문논역총간》 28집, 29집, 30집에, 권사(卷四)는 《중국어문학지》 41집에, 권오(卷五) 상(上)은 《중국학논총》 44집에 게재되어 있음

** 한림대학교(翰林大學校) 중국학과(中國學科) 교수(教授).

正門)으로 이동해 치재(致齋)를 드리는 저녁때처럼 갈탐(渴探), 엄경(嚴更), 경척(警惕)을 하였다.

황혼이 들면 종고원(鐘鼓院)의 관리가 태묘 앞으로 와서 시각을 보고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전과 같았다. 삼경(새벽 11-1시)이 되어 제사를 진행할 때에는 대종백(大宗伯)이 중엄(中嚴)과 외관(外辦)의 상황을 상주(上奏)하였고, 그리고 황제가 재전(齋殿)을 나왔다. 예직관(禮直官) 등이 앞에서 태묘(太廟)의 각 실(室)의 어전(御殿) 앞으로 인도하여 상주(上奏)를 하고 예식을 보고 드렸다. 황제는 어전 위의 동남쪽 모서리에서 서쪽을 향해 섰고, 삼헌(三獻)을 행하고, 희생(犧牲)을 올렸다. 궁정(宮廷)의 악대(樂隊)는 《건안(乾安)》, 《흥안(興安)》, 《정안(正安)》, 《희안(禧安)》의 장(章)을 연주하였고, 악무(樂武)로는 《문덕(文德)》, 《무공(武功)》, 《황무(皇武)》, 《대정(大定)》, 《소문(昭文)》, 《미성(美成)》, 《치룡(治隆)》, 《대명(大明)》, 《중광(重光)》, 《승천(承天)》, 《서도(瑞度)》, 《대덕(大德)》, 《대륜(大倫)》, 《대화(大和)》의 곡을 공연하였다. 예식(禮式)이 끝나면 태조(太祖), 태종(太宗), 고종(高宗) 세 분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실(室)을 나왔다. 어전(御殿)의 아래 횡가(橫街)의 북쪽에는 사명(司命), 호(戶), 조(竈), 중류(中霤), 문(門), 여(厲), 행(行) 등 일곱 신위(神位)를 나누어 설치해 놓았고, 횡가(橫街)의 남쪽에서는 조한왕(趙韓王) 이하 스물다섯 분의 공신(功臣)을 제사 드렸다. 남반(南班)의 종실(宗室)을 과건하여 그 세 분의 신주(神主)를 봉행(奉行)하게 하였다. 환관에게 명하여 의장(儀仗)으로써 맞아 명인전(明禮殿)으로 모시게 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 승황령(乘黃令)은 옥로(玉輅)를 대령한 뒤 옥로에 오를 것을 주청하였다.

주모(珠旒), 아극(牙戟), 비취색 유소(流蘇),

환패(環珮)를 차고, 천향(天香)을 보로(寶鑪)에 사르네.

승황령(乘黃令)에게 칙령을 내리사 손수 어가에 오르시고,

옥규(玉虬)는 천자를 호위하며 구름길에서 내려오네.

[珠旒牙戟翠流蘇, 環珮天香爇寶鑪. 中敕乘黃親進御, 玉虬擁駕下雲衢.]

황제는 관복(冠服)을 착용하였는데 성관(星官)의 형상을 그려 넣었다. 그 통천관(通天冠)은 북주(北珠)로 장식을 하였는데, ‘권운관(卷雲冠)’이라고도 불렀다. 황제는 강포(絳袍)를 입고, 옥패(玉珮)를 차고, 옥원규(玉元圭)를 쥐고 옥로(玉輅) 위에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좌우에 ‘어약(御藥)’이라 불리는 환관(宦官)이 한 명씩 관복(冠服)을 갖추고 홀(笏)을 쥐고는 시립(侍立)해 있었다. 왼쪽의 난간(欄檻) 가에는 중서령(中書令) 직책을 수행하는 환관(宦官)이 몸을 굽히고 관복(冠服)을 착용한 채 난간의 옆에 서 있었다. 붉은 실로 몸을 묶었는데 소홀하여 실수를 할까 걱정해서였다. 이를 일러 ‘집수관(執綬官)’이라 하였는데 그들은 황제의 물음에 대비하고 있었다.

수레에 달린 방울들 시중(侍中)의 옷자락을 흠모하듯 다투어 울리고,
 옥로(玉輅)를 손수 받들어 황제의 유히(允許)를 얻네.
 유학(儒學)은 이미 옛 일을 고찰하는 것에 통달하였고,
 더욱이 백성의 아픔을 구하기 위해 훌륭한 계책을 준비하고 있다네.
 [和鸞爭羨侍中裾, 玉輅親承接帝俞. 儒學已通稽古力, 更求民瘼備嘉謨.]

옥로를 경비하는 위사(衛士)들은 검은 색의 꼭대기가 둥글고 귀를 덮는 모자(圓頂蓋耳帽子)를 썼고, 선명한 황색 관삼(寬衫)과, 청색 친삼(襯衫)을 입었고, 청색 바지(靑襪頭褲)에 청색 신발(靑履)을 착용하였으며, 비단줄(錦繩)을 묶고 있었다. 옥로 뒤에는 네 사람이 매달려 왔는데 마치 나뭇가지에 매달린 어린애들과 같아 보였다. 옥로의 앞에는 법복(法服)과 조관(朝冠)을 착용한 두 사람이 간(簡)을 쥐고 옥로를 인도해 갔다. 옥로의 좌우에도 역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옥로를 따라 갔다.

옥로가 나아가려 할 때 행장(行裝)을 준비하고,
 참정(參政)은 앞에서 막아서며 ‘조금 늦게 떠나시기[少遲]’를 상주하네.
 미리 치장한 금오가장사(金吾街仗使),
 위용(威容)은 대단하고, 일하는 것 의식에 맞는대네.
 [辦嚴於輅放行時, 參政前遮奏少遲. 預飾金吾街仗使, 威容浸盛務如儀.]

대저 “조금 늦게 떠나시지요[少遲]”라고 주청을 올리는 이유는 수많은 말들과 수천의 관리들을 가지런하게 정렬시키기 위해서였다.

법도(法度)와 예의(禮儀)는 옛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었고,
 소요런(逍遙輦)과 평련(平輦)은 소여(小輿)보다 가볍다네.
 금룡(金龍)이 사이사이 장식된 붉은 노을빛 비단(彤霞綵)
 인끈으로 천가(天街)에 보로(寶輅)가 다니도록 이끈다네.
 [法儀森嚴按典刑, 逍遙平輦小輿輕. 金龍間飾彤霞綵, 綬引天街寶輅行.]

예비용 말인 탄마(誕馬)가 여섯 필 있었다. 남조(南朝)의 송(宋) 효무제(孝武帝)는 왕후(王侯)의 의장에 쓰이는 탄마(誕馬)는 두 필을 넘지 못한다고 조칙을 내린 바 있다. ‘탄(誕)’이란 ‘흩어진다[散]’는 의미인데 예전에는 안장과 언치도 갖추고 있었다. 경우(景祐: 1034-1038) 연간 처음으로 <지(志)>에 지금의 노(輅) 전에는 일반적으로 탄마를 여섯 필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다음과 같았다.

홍침(紅檐)을 한 탄마(誕馬)들을 몰아 쌍을 지어 달리고,
 목 아래 붉은 끈, 비단 가슴걸이 끈에 연결되어 있네.
 비단 적삼(錦衫) 입은 마차몰이꾼 부지런히 말을 몰고,
 함께 핏빛 같은 땀 흘리며 구름처럼 가볍게 달림을 자랑한다네.
 [紅檐誕馬控雙行, 項下朱絲繫綵纓, 驕士錦衫勤執御, 共誇汗血似雲輕.]

말을 다루는 자는 비단으로 만든 보상화(寶相花) 적삼(衫)을 입었다. 또 어마(御馬)는 일반적인 의전(儀典) 외에 갑옷을 걸치고 여기에 금령(金鈴)을 달고, 노의 앞에서 행렬을 이끌고 나갔다.

난령(鑾鈴)과 서갑(犀甲)을 갖추고 청총(靑聰)을 물고가니,
 못 말들 깜짝 놀라 씻은 듯 사라져버린다네.
 어필(御筆)로 이름을 내려 주시니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아패(牙牌)에 새겨진 금각(金刻), 풀머리에 바람이 부네.
 [鑾鈴犀甲控靑聰, 凡馬俄驚一洗空. 御筆賜名猶記得, 牙牌金刻草頭風.]

이는 본조(本朝)의 고사로 남교(南郊)나 명당(明堂) 때에는 의제(儀制)를 따라 진행하였다.

駕回太廟宿奉神主出室

上御平頭輦，回宿太廟齋殿，其禁衛鐵騎，盡移至太廟，繞瑞石山前後護衛。天武·金吾·武勳·羽林等兵士，並列衛。六軍儀仗鹵簿，移屯太廟後，夜移麗正，喝探嚴更警惕，並如致齋夕。於黃昏時，鐘鼓院官赴太廟前，報出動更籌，唱過姓名，如前同也。三更行事，大宗伯奏中嚴¹⁾外辦²⁾，上出齋殿，禮直官等導引詣太廟諸室殿庭，行奏告禮³⁾。上詣殿上東南隅，面西立，行三獻⁴⁾，獻牲牢⁵⁾，宮架⁶⁾樂奏《乾安》·《興安》·《正安》·《禧安》之章，樂武《文德》·《武功》·《皇武》·《大定》·《昭文》·《美成》·《治隆》·《大明》·《重光》·《承天》·《瑞度》·《大德》·《大倫》·《大和》之曲。禮畢，奉太祖·太宗·高宗三神主出室。殿下橫街之北，分設七祀位，如司命·戶·竈·中霤·門·厲·行等神，橫街之南，設配饗⁷⁾功臣趙韓王以下二十五位分祀。差南班⁸⁾宗室奉行其三神主。命內侍以儀仗迎往明禋殿。天明時，乘黃令⁹⁾進玉輅，奏請登玉輅。“珠旄牙戟翠流蘇¹⁰⁾，

1) 중엄(中嚴): 중정(中庭)의 경비.

2) 외판(外辦): 궁궐의 경비.

3) 고례(告禮): 고대에 제왕이나 관리가 출행(出行)할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보고 드리던 의식.

4) 삼헌(三獻): 고대에 제사를 드릴 때 세 번 술을 올리던 의식. 초헌작(初獻爵), 아헌작(亞獻爵), 종헌작(終獻爵)을 합쳐 삼헌이라 하였다.

5) 생뢰(牲牢): 희생(犧牲)으로 쓰이는 동물.

6) 궁가(宮架): 고대 궁중에서 악기를 매달아 두던 지지대. 여기서는 궁정 악대를 의미한다.

7) 배향(配饗): 합제(合祭). 고대에 제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선조의 제사도 함께 드리는 것을 일컫거나 공신(功臣)의 경우 제왕의 종묘(宗廟)에서 함께 제사 드리는 것. 배향(配享)이라고도 한다.

8) 남반(南班): 송(宋) 인종(仁宗)이 남교(南郊)에서 대사(大祀)를 지낼 때 황족(皇族) 자제(子弟)들에게 내린 관작(官爵).

9) 승황령(乘黃令): 승황(乘黃)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머리가 네 개인 황색 말. 《관자(管子)》 등의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제자서(諸子書)에는 상상의 신마(神馬)로 나와 있다. 후대에 거로(車輅)의 장관을 승황령(乘黃令)이라고 불렀다.

環珮天香燕寶鑪. 中敕乘黃親進御, 玉蚪¹¹⁾擁駕下雲衢¹²⁾.” 上御冠服, 如圖畫星官¹³⁾之狀, 其通天冠俱用北珠¹⁴⁾卷結, 又名“卷雲冠”; 服絳袍, 玉珮, 執玉元圭. 正座玉輅上, 左右各一內侍, 名“御藥¹⁵⁾”, 冠服執笏侍立. 左首欄檻邊, 一從侍中書¹⁶⁾宦者, 曲身冠服, 旁立於欄, 以紅絲條繫定, 恐致疎失, 名爲“執綏官¹⁷⁾”, 以備玉音顧問. “和鸞¹⁸⁾爭羨侍中¹⁹⁾裾, 玉輅親承接帝俞. 儒學已通稽古²⁰⁾力, 更求民瘼備嘉謨²¹⁾.” 駕輅衛士, 裹漆圓頂蓋耳帽子, 著黃生色寬衫, 青襯衫, 青襪頭褲²²⁾, 青

- 10) 유소(流蘇): 채색 우모(羽毛)나 실 등으로 만든 이삭 모양의 늘어뜨리는 장식물. 일반적으로 거마(車馬)나 커튼 같은 물건 위에 장식을 한다. 여기서 뜻이 확장되어 유소로 장식을 한 커튼을 가리키기도 한다.
- 11) 규(蚪): 전설 중의 뱀 없는 용.
- 12) 운구(雲衢): 구름 속의 길. 조정(朝廷)의 비유로도 쓰인다.
- 13) 성관(星官):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의 항성(恒星)을 몇 개씩 조합하여 하나로 묶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한 항성의 조합을 일러 성관이라 하였다. 당(唐) 사마정(司馬貞)은 《사기(史記)·천관서(天官書)》를 체해(題解)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문(天文)에는 오관(五官)이 있다. ‘관(官)’이라는 것은 ‘성관(星官)’을 말한다. 성좌(星座)에도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마치 사람들의 관직에 있어 순서가 있는 것과 같기에 천관(天官)이라 부르는 것이다(天文有五官. 官者, 星官也. 星座有尊卑, 若人之官曹列位, 故曰天官.)” 성관은 이 외에 천문(天文)을 관장하는 관리의 의미도 있다.
- 14) 북주(北珠): 동주(東珠)라고도 한다. 송화강(松花江) 하류 및 그 지류에서 생산되는 진주로 알이 크고 윤기가 흘러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
- 15) 여약(御藥): 관직의 하나로 궁중의 의약(醫藥)과 예문(禮文)을 담당하였다.
- 16) 중서(中書): 관직의 하나로 중서령(中書令)의 약칭이다. 한대(漢代)부터 중서령을 설치하였는데 천자의 조령(詔令)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맡았고, 환관(宦官)이 이를 담당하였다. 또 관서를 의미하기도 하였는데 당대(唐代)의 중서성(中書省), 송대(宋代) 정사당(政事堂)을 ‘중서(中書)’라고 불렀다. 정사당은 재상의 사무실 본부로 당초(唐初)부터 이 이름이 있었으며 문하성(門下省)에 속해 있다가 후에 중서성(中書省) 산하가 되었다. 원풍(元豐) 연간 제도개혁 이후 상서성(尙書省)의 도당(都堂)이 재상의 사무실 소재지가 되었고, 이에 도당을 정사당이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 17) 집수관(執綏官): 황제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수레에 배석(陪席)하는 관리.
- 18) 화란(和鸞): 고대 수레에 있던 방울. 수레 앞 광목(橫木) 위에 걸려 있던 것을 ‘화(和)’라 하였고 멩에(軛)나 수레틀(車架)에 걸려 있던 것을 ‘란(鸞)’이라 하였다.
- 19) 시중(侍中): 고대 직관(職官)의 하나로 진대(秦代)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정구 관직 외에 관직을 하나 더하는 개념이었다. 황제가 궁정을 출입하는 것을 시중(侍從)하고, 조정(朝政)을 탐문하는 등의 일을 하였기에 점차 요직(要職)이 되어 진(晉) 이후에는 재상에 상당하는 직책이 되었다. 당대(唐代)에는 문하성(門下省)의 장관, 즉 재상의 직책이 되었다. 북송에도 그 이름이 남아 있었으나 남송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 20) 계고(稽古): 옛 일을 고찰하다.
- 21) 가모(嘉謨): 훌륭한 계책(嘉謀).
- 22) 청기두고(靑襪頭褲): 미상. 《동경몽화록》 권10 <가속대묘봉신주술실(駕宿太廟奉神主出室)>에는 ‘청고(靑褲)’로 되어 있기에 본문에서는 ‘청색 바지’로 번역을 하였다.

履, 繫錦繩. 輅後四人攀行, 如攀枝孩兒. 輅前有服法服朝冠二人, 執簡, 導輅行. 輅之左右, 亦二人, 服法服乘馬, 從輅行. “辦嚴²³於輅放行時, 參政²⁴前遮奏‘少遲’. 預飾金吾²⁵街仗使, 威容浸盛務如儀.” 蓋奏請少遲, 欲令萬騎千官, 整齊導引. “法儀森嚴按典刑²⁶, 逍遙²⁷平輦²⁸小輿²⁹輕. 金龍間飾彤霞綵, 綬引天街寶輅行.” 誕馬³⁰六匹. 按宋孝武詔王侯誕馬不得過二匹. 誕, 散也. 舊並施鞍韉. 景祐初志今輅, 前凡六匹誕馬者, 正謂之“紅檐誕馬控雙行, 頂下朱絲繫綵纓, 駟士³¹錦衫勤執御, 共誇汗血似雲輕.” 按馬者衣錦寶相花衫也. 又御馬常儀外, 有甲騎, 綴以金鈴, 在輅前引行. “鑿鈴³²犀甲控青驄, 凡馬俄驚一洗空. 御筆賜名猶記得, 牙牌金刻草頭風.” 此本朝故事, 郊禋皆遵制導引矣.

23) 판엄(辦嚴): 행장(行裝)을 준비하다.

24) 참정(參政): 관직명(官職名). 송대(宋代) 참지정사(參知政事)의 약칭으로 재상(宰相)의 부직(副職)이다.

25) 금오(金吾): 관직명(官職名). 황제(皇帝) 및 대신(大臣)의 경호, 의장 및 경사(京師)의 순찰, 치안 등을 담당하던 무직(武職).

26) 전형(典刑): 옛 제도 및 법. 전형(典型)으로도 쓰인다.

27) 소요(逍遙): 천자가 타던 가마의 일종인 소요륜(逍遙輦). 《송사(宋史)·여복지(輿服志)》 1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소요륜은 종려나무로 지붕을 만들었고, 붉은 바탕에 금칠을 하고 은으로 장식을 하였으며, 붉은 칠을 한 부판(扶版) 하나, 운판(雲版) 하나, 긴 장대 둘에 금칠을 하고 은으로 만든 용머리 장식을 하였다. 항상 황제가 출행(出行)할 때 사용하였다[逍遙輦以椶櫚爲屋, 赤質, 金塗銀裝, 朱漆扶版一, 雲版一, 長竿二, 飾以金塗銀龍頭. 常行幸所御.]”

28) 평륜(平輦): 천자가 타던 수레의 일종. 《송사(宋史)·여복지(輿服志)》 1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평륜은 평두륜이라고도 하고, 태평륜이라고도 하는데, 소요륜처럼 장식 하나 지붕이 없다[平輦, 又名平頭輦, 亦曰太平輦, 飾如逍遙輦而無屋.]”

29) 소여(小輿): 왕실(王室)에서 사용하던 가벼운 수레. 여거(輿車)라고도 하였다.

30) 탄마(誕馬): 의장대 중 안장과 재갈을 채우지 않은 예비용 말. 단마(但馬)라고도 한다.

31) 추사(騶士): 장관을 위해 마차나 말을 부리는 사람.

32) 난령(鑿鈴): 임금이 타는 수레에 다는 방울.

9. 황제가 명당(明堂)의 재전(齋殿)에서 인사(禮祀)의 의식을 행하다

황제가 태묘(太廟)에서 옥로(玉輅)를 타고 여정문(麗正門)으로 들어와 재전(齋殿)에서 하루 머물며 선조(先朝)가 친히 명당(明堂)에서 제사를 지낸 고사(故事)를 따랐다. 명당(明堂)의 어전(御殿)은 문덕전(文德殿)으로 그 안에서 배향(配饗)하였다. 태상시(太常寺)의 봉상관(奉常官)이 전(殿)위에 서서 신위(神位) 넷을 바르게 배치하였는데, 모두 누런 요(黃褥)를 사용해서 신주(神主)의 판위(板位)를 설치하였다.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것은 호천상제(昊天上帝)의 신위였고,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것은 태조(太祖), 태종(太宗), 고종(高宗)의 신위였다. 낮은 탁자 위에 예물(禮物)을 진설(陳設)하였고, 어전(御殿)의 낭무(廊廡)에는 하늘의 별(天星), 산악(山岳), 하천(瀆) 및 백신(百神)의 판위(版位)를 늘어놓았다. 제기(祭器)를 늘어놓고, 옥책(玉冊)을 어전 계단 사이에 진열하였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옥각(玉刻)한 금등(金籒) 속 보책(寶冊)의 문장들
 성대한 아름다움을 펼쳐 앞의 이야기들을 꾸며준다네.
 하늘에 계신 여러 성인들 모두 기뻐 돌아보시고,
 응당 많은 복(蕃釐) 있어 성군(聖君)께 내리실 것이라네.
 [玉刻金籒寶冊文, 鋪張景鑠掩前聞, 在天列聖皆欣顧, 宜有蕃釐錫聖君.]

무릇 대사(大祀)에는 태축(太祝) 한 명이 단서(搏黍)와 폐(肺), 그리고 제전(祭奠)에 쓰이는 옥책(玉冊)을 올렸다.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옥책의 문장은 예를 다하여 아주 공손하고,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려 푸른 하늘에 빈다네.
 누구에 의지해 옥을 설치하고 제사 장소로 나아가나?

황제는 청명(淸明)한 조정(朝廷)의 소부(小府) 관리에게 칙령을 내리시네.
제사에 쓰이는 창벽(蒼壁)과 황종(黃琮), 그리고 찬작(瓚爵),
신령한 불빛이 초에 내려오니 보배로운 빛이 차갑게 빛나네.

[玉冊文章禮極恭, 爲民祈福籲蒼穹. 憑誰設玉詣祠壇, 帝勅淸朝小府官. 蒼壁黃琮仍瓚爵, 靈光下燭寶光寒].

확수(鑊水)라는 것이 있었는데, 《주례(周禮)·소사구(小司寇)》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무릇 오제(五帝)에게 제사를 올릴 때는 확(鑊)에 물을 담았다(凡禮祀五帝實鑊水.)” 지금은 종관(從官) 한 명을 보내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물을 부어 확(鑊)에 가득 담으니 정결하고도 맑아,
계속 사용하여도 때에 따라 더 불어나네.
비린 것 익힘에 보러 오는 사람 때를 놓치지 않고,
김 올라오니 음식은 저절로 완성된다네.
광록(光祿)이 희생(犧牲)을 끌고 옴에 있어 옛 장절(章節)을 따르고,
부엌에 이르러 다시 승랑(丞郎)에게 당부를 하네.
각각 맡은 직분의 엄격하고도 삼가함을 알아,
향기로운 공물(供物)을 풍성히 늘어놓으니 정(鼎)과 조(俎)의 향이라네.

[滿傾鑊水潔而淸, 耗試隨時更沃增. 腥熟眈來無失節, 饌成猶自氣蒸騰. 光祿牽牲有舊章, 詣廚更復屬丞郎. 各供乃職知嚴恪, 芳薦豐陳鼎俎香].

희생물을 올리는 관리는 다음과 같았다.

제사에 쓰이는 희생은 항상 붉은 색 송아지[騂]를 쓴다네.
단(壇) 가까워서 희생을 도살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소리가 들린다네.
순식간에 옥조(玉俎)에 살이 붙은 희생물[肥膷]이 올려지고,
주상은 친림하셔서 희생을 신령께 바친다네.

정선(精選)한 감천궁(甘泉宮)의 시종신(侍從臣),
차례로 태을구궁신(太乙九宮神)을 제사지내네.
높이 제사지내고, 위로 공물을 바치니 신령께서 복을 내리신다네,
같이 제왕을 보위하사 제진(帝眞)을 받드네.

[藟栗犧牲總用騂, 近壇眈宰尙聞聲. 須臾玉俎供肥膷, 主上躬臨奏薦牲. 妙選甘泉

侍從臣, 列祠太乙九宮神. 高禋上錫垂靈貺, 同衛宸旒奉帝眞]

이에 구궁(九宮)의 귀한 신을 동청문(東靑門) 밖 제사 지내는 곳(祠壇)에서 나누어 제사지냈다.

여러 신들께 각각 제사를 지냄에 있어 농사(農師)는 지성을 다한다네,
해당 관리는 제단을 설치하니 그 기세가 위엄 있다네.
높이 인주(人主)가 친인(親禋)하는 날을 알리니,
봄에 《재삼(載芟)》을 빌며 읊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네.
[分祀農師(闕)重誠, 有司設壇勢岩峯. 報崇人主親禋日, 不比春祈詠《載芟》]

그날 밤 삼경(三更)에 섭대종백(攝大宗伯)이 아패(牙牌)를 쥐고 중엄(中嚴)과 외관(外辦)을 상주하여 행사의 시작을 아뢰었다. 천자가 재전(齋殿)에서 나오면 남쪽을 향해 커다란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제복(祭服)으로 갈아입었다. 황제는 청색 곤룡복(袞龍服)과 중선(中單)을 착용하였으며 붉은 석(湯)을 신고, 옥패(玉珮)를 늘어뜨리고, 알이 굵은 진주로 만든 스물 네 가닥의 유(旒)가 달린 평천관(平天冠)을 썼다. 지함문사(知閤門事), 어대(御帶), 환위관(環衛官) 및 대례사(大禮使), 태상예직관(太常禮直官)이 선도를 하고, 두 명의 내시(內侍)가 황제의 가마를 떠받들며 시중을 들었다. 황제는 황도(黃道)에서 서뇌향(瑞腦香)을 뿌리며 명당(明堂)의 어전(御殿)에 있는 자그마한 천막으로 왔다. 어좌(御座)로 오르길 주청하면 잠시 쉬면서 예절(禮節)이 엄정(嚴整)한 지를 보았다. 등가(登歌)를 연주하는 도사(道士)가 십여 명, 종(鐘)과 경(磬)이 두 대, 가색(歌色)과 금(琴), 슬(瑟) 등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예닐곱 명의 집사인(執事人)이 어전 위에서 일을 지시하였고, 어전 앞에는 궁가(官架)의 악기가 있었는데 편종(編鐘)과 옥경(玉磬)이 늘어서 있었다. 그 받침[架]은 방향(方響)과 같았는데 다만 더 넓고 높았을 뿐으로 땅 위에서 있었다. 편종(編鐘)은 형태가 약간 좁았다. 옥경(玉磬)은 곡척(曲尺)처럼 생겼는데 그 구부러진 끝을 실로 묶어 놓았고, 모두 아래 위 네 층으로 받침대에 걸쳐 있었

으며 두 모서리에는 유소(流蘇)를 달아 놓았다. 그 다음으로 대고(大鼓) 몇 면이 늘어서 있었는데 셋 혹은 다섯이 있어 나무로 꿰어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또 대종(大鐘)이 있었는데 경종(景鐘)이라고도 하고 절고(節鼓)라고도 하였다. 금(琴)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긴 것이 있었고, 쟁(箏)과 비슷하나 큰 것이 있었다. 대나무를 잘라 소관(簫管) 비슷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양 끝부분에 마디를 남겨 옆으로 붙였다. 흡을 구워 만든 것이 있었는데 둥그렇게 생겼으면서 구멍을 내었다. 생(笙)과 비슷하지만 큰 것, 소(簫)와 비슷하지만 관(管)을 늘인 것이 있었다. 노래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는 맑게 울려 퍼졌다. 악대(宮架) 앞에 두 개의 대를 세웠는데, 악공(樂工)들은 모두 농건(籠巾)처럼 생긴 개척(介幘)을 썼고, 붉은 색 관삼(寬衫)을 입었으며, 실로 짠 요대(腰帶)의 일종인 늑백(勒帛)을 착용하였다. 그 춤추는 사람들은 자색(紫色)의 관(冠)을 썼고, 관 위에는 횡판(橫板)이 있었다. 그리고 조복(皂服)에 붉은 색 치마[裙]와 신발[履]을 착용하였다. 음악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문무(文舞)를 추었는데, 손에는 소패(小牌)를 쥐고 있었고, 문무를 추는 사람보다 몇 사람을 더 하여 동요(銅鑊)와 향환(響環)을 쳤다. 또 포조돌(鋪竈突)과 비슷한 것을 쳤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동옹(銅甕) 하나를 옮겨 땅에 놓고 쳤다. 춤을 추는 자들은 그 모습이 마치 때리고 찌르는 듯, 구름을 타고 오르는 듯, 마치 이별을 하는 듯하였다.

면류관(冕旒冠)은 번쩍번쩍 신비로운 빛을 받고,

단술을 따름에 공손히 관장(裸將)을 천거하네.

문덕(文德)과 무공(武功) 모두 춤에 기탁하고,

자연스럽게 춤추는 이들의 행렬은 옛 전적과 맞아떨어지고,

춤은 《팔일(八佾)》의 악장(樂章)과 조화를 이룬다네.

펑 깃털로 만든 우(羽)를 잡고 방패를 휘두르니 고의(古意)가 돌아온다네.

번잡한 의식에 본받을 바 없다 말하지 말지니,

양쪽 계단에 일찍이 감동한 유묘(有苗)의 무리가 와 있었다네.

[冕旒奕奕接靈光, 酌醴惟勤舉裸將, 文德武功皆寓舞, 自然綴兆合彝章. 舞分《八佾》樂章譜, 執羽揚干古意回. 莫道緝儀無祖述, 兩階曾格有苗來]

음악이 시작되면 우선 축(祝)을 쳤는데, 나무로 만들었고, 네모난 호(方壺)처럼 생겼으며 산수(山水)를 그려 넣었다. 매번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축을 쳤는데 안쪽과 바깥을 모두 아홉 번 쳤다. 음악이 그치면 어(敵)를 쳤는데 그 형상이 옆드린 호랑이 같았고, 등 위는 모두 툽니로 되어 있었다. 곡이 하나 끝나면 대나무 조각으로 그곳을 긁었고, 그러면 음악이 끝났다. 명당(明堂)의 악장(樂章)으로는 《건안(乾安)》, 《경안(景安)》, 《가안(嘉安)》, 《광안(廣安)》, 《화안(化安)》, 《풍안(豐安)》, 《광안(光安)》, 《희안(禧安)》, 《창안(彰安)》, 《덕안(德安)》, 《정안(正安)》, 《희안(熙安)》 등의 곡을 연주하였다. 무릇 악곡은 모두 19장으로 명당의 제사에는 모두 12장을 사용하였고, 경령궁(景靈宮) 및 태묘(太廟)에 네 장을 서로 바꿔가며 연주를 하였으며 모두 '안(安)'자로 이름을 삼았다.

청묘(淸廟), 영궁(靈宮), 그리고 인단(禋壇),
 악사들은 모두 봉상관(奉常官)에 속해 있네.
 음악은 감동적이지 신인(神人)들 기뻐하시고,
 악곡(樂曲)은 또 열아홉 장의 '안(安)'을 이룬다네.
 [淸廟靈宮暨禋壇, 伶工總屬奉常官. 八音欲格神人悅, 樂曲更成十九安章]

명당(明堂)의 악무(樂舞)는 문덕(文德)과 무공(武功)의 춤이었는데, 무릇 등가(登歌)와 궁가(宮架)의 음악은 모두 압악관(押樂官)이 관장하였다. 무릇 대사(大祀)에는 등가(登歌)와 궁가(宮架)의 음악을 사용하였는데, 섭태상승(攝太常丞) 두 사람을 파견하여 한 명은 단상(壇上)의 지휘를, 다른 한 명은 단하(壇下)의 지휘를 총당하게 하였다. 또 협률랑(協律郎) 두 사람을 파견하여 한 명은 단상의 지휘를, 다른 한 명은 단하의 지휘를 살피게 하였다.

궁가(宮架)와 등가(登歌)는 봉상(奉常)에 속하고,
 휘(麾)를 들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승랑(丞郎)이라네.
 전당(殿堂)에서는 서로 균천(鈞天)의 음악을 연주하고,
 신속히 절하고 성실하고 공경하는 모습은 전장(典章)과 어울린다네.

[宮架登歌屬奉常, 舉麾押樂選丞郎, 殿堂互奏鈞天樂, 亟拜精虔合典章]

한 명의 상직관(常直官)이 조그만 천막에서 예를 행할 것을 주청하고, 천자를 어전(御殿)의 계단 아래로 인도하여 내려왔다. 오직 예직관(禮直官) 및 대례사(大禮使) 두 명만이 천자를 부축해 어전에 올랐다. 지합문관(知閣門官), 어대(御帶), 환위관(環衛官)들은 모두 어전의 난간 아래 시립(侍立)하여 천자가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렸다. 천자가 어전에 올라가면 정북(正北)쪽에 있는 호천상제(昊天上帝)에게 이르러 꿇어앉으며 절을 하였고, 섭전중감찰(攝殿中監察)이 동쪽을 향해 한 번 절을 하고 작(爵)을 올리고 재배(再拜)를 하였다. 다시 정동(正東)쪽에 있는 태조(太祖), 태종(太宗), 고종(高宗)의 신위에 무릎 꿇어 절을 하였고, 작을 올렸으며, 또 초헌례(初獻禮)를 병행하였다. 천자가 어전에 돌아 올라가면 궁가(宮架)의 음악이 멈추었고, 어전 위에 있는 등가(登歌)의 음악이 울렸다. 천자가 어전에서 내려오면 등가의 음악이 멈추었고,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황제께서 처음 어전 계단의 공지(陛墀)에 올라,
하늘을 받들며 조상에게 술을 올려 황제의 위용을 완성하네.
호관(虎關)은 저녁에 열려 모두들 연회에 참석하고,
나란히 앉아 어지러이 온갖 신을 호위하네.
[龍袞初升殿陛墀, 奉天酌祖藏皇儀, 虎關夕啓咸來燕, 從坐紛綸衛百祇]

아헌(亞獻)은 친왕(親王)을 보내 대신하여 예를 행하게 하였다. 이종(理宗) 때에는 황태자(皇太子)에게 위탁하여 아헌을 하게 하였고, 그 제복(祭服)은 제도에 준하였다. 《송조회요(宋朝會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곤룡포와 면류관을 착용하고, 백주(白珠), 구류(九旒)를 늘어뜨리며, 구장(九章)과 크고 작은 쌍수(雙綬)가 있는 것을 일러 ‘곤면(袞冕)’이라고 한다.
[服袞冕, 垂白珠九旒, 章大小雙綬, 謂之袞冕]

□□주류(珠旒), 이상(二觴)을 헌상(獻上)하고, 구장(九章)과 쌍수(雙綬)는 황태자를 의미한다네. 이로 말미암아 삼가 가법(家法)을 행하니, 황위를 계승함이 끝이 없어 앞길은 무궁하다네.

[□□珠旒薦二觴, 九章雙綬表儲皇. 由來欽若爲家法, 嗣復無疆有道長]

아헌(亞獻)이 끝나면 예직관(禮直官)이 다시 천자에게 어전에 올라가실 것을 주청 드렸다. 호천상제(昊天上帝)의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갔고, 옥책(玉冊)을 올리는 좌우의 두 관원이 옥책을 올리고 무릎을 꿇었다. 천자 역시 무릎을 꿇고 배례(拜禮)를 하였고, 술을 땅에 뿌렸으며[奠酒], 옥규(玉圭)를 손에 쥐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중서사인(中書舍人)이 옥책을 읽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폐옥(幣玉)을 높이 들어 올려 상공(上公)에게 준다네,
함(函)을 열어 책(冊)을 읽으니 공이 이루어짐을 칭송하는 것이라네.
보작(寶爵)을 받들고 와 친히 세척하는 것을 살피니,
예주(醴酒)의 향기 퍼져나가고, 그 색깔 호박(琥珀) 같이 붉다네.
[幣玉高擎授上公, 發函請冊頌成功. 捧來寶爵親監滌, 醴酒浮香琥珀紅]

천자는 다시 어전에서 내려와 작은 천막(小幄)으로 들어갔다. 종헌(終獻)은 친왕(親王)을 보내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경건하게 명인(明禋)을 올리고, 궤연(几筵)에 참가하는데,
예(禮)는 세 번 전(奠)을 올리고, 음악은 다시 올려 퍼진다네.
묘석(廟祔)은 반석처럼 공고하게 하려하고,
조상의 제사(宗祀) 올리니 종실(宗室)의 친척 중 현명한 자들 먼저 온다네.
[祗事明禋與几筵, 禮成三奠樂重宣. 欲令廟祔如磐固, 宗祀先來肺腑賢]

종헌(終獻)이 끝나면 예직관(禮直官)이 천자에게 어전에 오를 것을 주청 드렸다. 술과 제사 지낸 고기로 음복(飲福)을 함에 있어, 옥작(玉爵)을 들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천자 역시 무릎을 꿇고 이를 받았다,

위대하신 황제의 홍복(鴻福), 만년(萬年)의 상(觴),
 세 번을 넘기며 제사지낸 음식의 향을 나눠 마신다네.
 음식들 거두어 서민들 모두에게 하사하시니,
 으뜸가는 순정한 복을 받아 기쁘게 새로이 맛본다네.

[穹皇鴻福萬年觴, 三咽仍分飲胙香. 斂錫庶民皆極, 受元純福喜新嘗]

음조(飲胙)를 마치고 신명을 보냈다.

《경안(景安)》의 악무(樂舞)에 못 신령들이 선회하고,
 정성을 다하니 두변(豆籩)을 뚫고 하늘에 다다르네.

천자의 의장인 우보(羽葆)와 예정(霓旌), 돌아보니 홀로 있고,
 복(福)이 흘러넘쳐 홍복(鴻福)이 만년을 유지할 것이네.

[《景安》樂舞衆靈旋, 誠達穹旻徹豆籩. 羽葆霓旌回盼獨, 福流鴻祉萬斯年]

천자가 어전에서 내려와 작은 천막 앞에 이르러 공수(拱手)를 하고 망제(望祭)와 요제(燎祭)를 드렸다. 어전(御殿) 위의 예과(禮科), 폐백(幣帛), 옥책(玉冊)은 모두 우측 계단으로 해서 내려갔다. 남쪽으로는 요로(燎爐)가 있었는데, 그 곳에 한 사람이 있어 여러 물건들을 소리 높여 점검하면서 화로에 집어넣어 태웠다. 어전 옆과 무랑(廡廊)에서 천성(天星)과 백신(百神)을 배사(陪祀)하는데, 배사관(陪祀官) 및 집사관(執事官)들은 모두 북면(北面)을 하고 정렬하고 있다가 의식을 이끄는 이[贊者]가 “경들은 배례하시오!”라고 하면 모두들 배례를 하고 나왔다. 천자는 소차(小次)의 앞에서 소여(小輿)를 타고 대차(大次)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어연(御輦)에 올랐다. 교악소(教樂所)의 악사들은 어전 문 앞에서 배열해 있다가 예가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는 곡을 연주하였다. 갑사(甲士) 한 명이 예성곡파(禮成曲破)를 다 추고 나면 배우들이 들어와 구호를 외쳤고,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여정문(麗正門) 밖에 있는 제군(諸軍)의 고취(鼓吹)가 일제히 일면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천자의 수레가 수공전(垂拱殿)에 들어서면 재집(宰執)과 백관(百官)들이 평상복을 입고 들어와 황제를 뵈고 축하를 올리는 대기거(大起居)가 있었는데 도무(踏舞)와 구배(九

拜)를 드렸고 만수무강하시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추밀(樞密)은 천자의 조명(詔命)을 알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경사(慶事)를 시행하니, 경들과 이를 함께 하노라(履茲新慶, 與卿等同).” 섭예부랑(攝禮部郎)이 어전 앞에서 해엄(解嚴)을 주청하고, 재신(宰臣)과 백관(百官)들은 여정문(麗正門) 밖 막위(幕位)로 나가 하늘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여정문 위로 올라갔고, 대사면(大赦免)이 내려졌다.

駕宿明堂齋殿行禮祀禮

上自太廟御玉輅入麗正門, 宿齋殿, 遵先朝親祀明禋故事. 明堂殿卽文德殿, 中配饗. 太常寺奉常官³³⁾於殿上立. 正配四位³⁴⁾, 皆用黃褥設板位: 居北面南, 昊天上帝位: 居東面西, 太祖·太宗·高宗位. 惟矮案上設禮物, 及殿廡設天星岳瀆百神版位. 推設祭器, 設玉冊於殿陛之間, 乃“玉刻金籙³⁵⁾寶冊文, 鋪張景鑠³⁶⁾掩前聞, 在天列聖皆欣頤, 宜有蕃釐³⁷⁾錫聖君.” 凡大祀, 差太祝³⁸⁾一員, 進搏黍³⁹⁾及

33) 봉상관(奉常官): 진(秦) 구경(九卿)의 하나로 종묘의 예식을 담당하였다. 《한서(漢書)·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봉상은 진나라 관리로 종묘의 예식과 의식을 담당하였고, 승(丞)이 있었다. 경제(景帝) 6년에 태상(太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안사고는 주에서 말하였다. “태상은 왕의 깃발이다. 해와 달을 그곳에 그려 놓았는데 왕에게 큰 일이 있으면 그 깃발을 세워 행진하였고, 예관(禮官)이 추가 되어 이 깃발을 잡고 갔기에 ‘봉상(奉常)’, 즉 ‘상을 받들다’라고 한 것이다. 후에 ‘태상’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큰 것을 높인다는 의미이다[奉常, 秦官, 掌廟禮儀, 有丞. 景帝中六年更名太常. 顏師古注: “太常, 王者旌旗也. 晝日月焉, 王有大事則建以行, 禮官主持之, 故曰奉常也. 後改曰太常, 尊大之義也.]”

34) 사위(四位): 명당(明堂)의 중심에 있는 신위는 호천상제(昊天上帝)로 조선(祖先)의 황제는 세 명이었다. 그런데 《송사(宋史)》 권101을 보면 남송(南宋) 이종(理宗) 가정(嘉定) 연간에는 영종(寧宗)을 더해 네 명이 되었고, 도종(度宗)시대에는 이종(理宗)을 더해 네 명을 만들었기에 본조의 기사와는 합치되지 않는다.

35) 금등(金籙): 금속으로 만든 띠가 있어 책이나 문서를 보관한 상자.

36) 경삭(景鑠): 아주 아름다운.

37) 번리(蕃釐): 많은 복.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보이는 단어로 안사고(顏師古)는 ‘번(蕃)’을 ‘많다’는 뜻으로 ‘리(釐)’를 ‘복(福)’으로 해석하였다.

38) 태축(太祝): 관명(官名). 상대(商代) 관직에 육태(六太)가 있었는데 태축(太祝)은 그 중의 하나이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춘관종백(春官宗伯)에 속해 있는 것에 태축이라는

肺, 祭奠⁴⁰⁾玉冊⁴¹⁾. 得其“玉冊文章禮極恭, 爲民祈福籲蒼穹⁴²⁾. 憑誰設玉詣祠壇⁴³⁾, 帝勅清朝小府官. 蒼壁⁴⁴⁾黃琮⁴⁵⁾仍瓚爵, 靈光下燭寶光寒.” 鑊水⁴⁶⁾者. 按, 《周禮》「小司寇」, “凡禮祀五帝實鑊水.” 今差從官一員奉祀, “滿傾鑊水潔而清, 耗試隨時更沃增. 腥熟眊來無失節, 饌成猶自氣蒸騰. 光祿牽牲有舊章, 詣廚更復屬丞郎. 各供乃職知嚴恪, 薦薦豐陳鼎俎⁴⁷⁾香.” 薦牲官, “藟栗⁴⁸⁾犧牲總用駢⁴⁹⁾, 近壇眊宰尙聞聲. 須臾玉俎⁵⁰⁾供肥膋⁵¹⁾, 主上躬臨奏薦⁵²⁾牲. 妙選⁵³⁾甘泉⁵⁴⁾侍從臣, 列祠太乙九宮神. 高禋⁵⁵⁾上錫垂靈貺⁵⁶⁾, 同衛宸旒⁵⁷⁾奉帝眞.”乃分祀九宮貴神於

직책이 있었는데 제사와 기도의 일을 장관하였다고 한다. 진한(秦漢) 시기에는 태측령승(太祝令丞)이 있었는데 태상경(太常卿)에 속하였고, 역대에 걸쳐 이 제도를 따랐다고 한다.

- 39) 단서(搏黍): 기장을 멩쳐서 만든 주먹밥.
- 40) 제전(祭奠): 신령(神靈)이나 묘 앞에 공품(供品)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
- 41) 옥책(玉冊): 제왕이 제사 때 하늘에 고하거나 존호(尊號)로 올릴 때 쓰던 책서(冊書)의 일종으로 옥간(玉簡)으로 만든다. 옥책(玉策)이라고도 한다.
- 42) 창궁(蒼穹): 하늘. 창천(蒼天).
- 43) 사단(祠壇): 제사 지내는 장소.
- 44) 창벽(蒼壁): 고대 제사에 쓰이던 푸른 벽(壁)으로 하늘에 예를 올릴 때 쓰였다.
- 45) 황종(黃琮): 고대 제사에 쓰이던 황색의 서옥(瑞玉)으로 땅에 예를 올릴 때 쓰였다. 《주례(周禮)·춘관(春官)·대종백(大宗伯)》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창벽으로는 하늘에 예를 올리고, 황종으로는 땅에 예를 올린다. 정현의 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중은, 팔각이어서 땅을 상징한다[以蒼璧禮天, 以黃琮禮地. 鄭玄注: “琮, 八方, 象地.].’”
- 46) 환수(鑊水): 환(鑊)은 고대 고기, 생선 등을 삶았던 발 없는 가마솥의 일종으로 ‘환에 담긴 물[鑊水]로 희생물을 씻었다고 한다.
- 47) 정조(鼎俎): 고대 제사나 연회(宴會) 때 희생(犧牲)이나 먹을 것들을 올려놓던 예기(禮器)로 정(鼎)은 세발 달린 솥(鼎)이고, 조(俎)는 음식을 올려놓는 그릇.
- 48) 건울(藟栗): 희생(犧牲). 막 자란 소뿔의 형상이 누에 같고 또 밤 같이 생겼다는 데서 온 말로 여기서 뜻이 더 나아가 송아지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송아지를 제사에 썼기에 제사에 올릴 희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 되었다.
- 49) 성(駢): 원래 붉은 색 말을 의미하나 붉은 색 소, 양 등도 의미한다. 여기서는 붉은 색을 의미.
- 50) 옥주(玉俎): 제사나 연회 시 희생물을 담던 예기(禮器).
- 51) 비물(肥膋): 살이 두둑하게 붙은 가축.
- 52) 주천(奏薦): 원래 주음(奏蔭), 즉 고관대작의 자식이 음보(蔭補)로 벼슬을 얻는 일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희생물을 천거한다는 의미.
- 53) 묘선(妙選): 정선(精選). 빼어난 인물, 혹은 물건을 선발하는 것.
- 54) 감천(甘泉): 진한(秦漢) 시기 이궁(離宮)의 명칭. 본래 진(秦)나라의 궁이었으나 한무제(漢武帝)가 확장을 하여 여기서 제후들과 외국 사신들을 알현하였고, 여름에는 피서지로도 활용하였다. 유적지는 섬서성(陝西省) 순화(淳化) 서북쪽의 감천산(甘泉山)에 있다.
- 55) 인(禋): 제사. 원래 연기를 피워 하늘에 복을 구하던 제사의 일종이었으나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제사를 가리키게 되었다.

東青門外祠壇也。“分祀農師⁵⁸(闕)重誠, 有司設壇勢岩岩⁵⁹。報崇人主親禋日, 不比春祈詠《載芟》。”其夜三更, 攝大宗伯⁶⁰執牙牌奏中嚴外辦, 奏行事, 駕出齋殿, 面南設一大幄次, 更換祭服, 青袞龍服, 中單⁶¹朱漚, 繩玉佩, 裹平天冠, 二十四旒, 並大眞珠爲旒。知閤⁶²御帶環衛, 及大禮使·太常禮直官前導, 二內侍御輦扶持。上自黃道, 撒瑞腦香而行, 至明堂殿小幄次, 請上升御座, 少歇, 伺禮節嚴整。其登歌道士十餘人, 列鐘磬二架, 歌色琴瑟等, 有五七執事人在殿上執役, 殿前設官架樂, 在列編鐘玉磬。其架如方響者同, 但增廣而高大, 立於地。編鐘形稍扁。玉磬狀似曲尺, 繫其曲尖處, 皆上下四層, 掛之架, 兩角綴以流蘇。次列數架大鼓, 或三或五, 以木穿貫, 立於架座上。又有大鐘, 曰景鐘, 曰節鼓。有如琴而長者, 如箏而大者。截竹如簫管, 兩頭存節而橫吹者。有土燒成, 如圓彈而開竅者。如笙而大者, 如簫而增管者。有歌聲則聲清亮。宮架前立兩竿, 樂工皆裹介憤如籠巾, 著緋寬衫, 勒帛⁶³。其舞者頂紫色冠, 冠上有橫板, 皂服⁶⁴, 朱裙履。樂作, 初則文舞⁶⁵, 手執小牌, 比文舞者加數人, 擊銅鏡響環, 又擊如鋪竈突⁶⁶者, 又兩人共移一銅甕就地擊者。舞者形如擊刺, 如乘雲, 如分手, 皆舞容矣。“冕旒奕奕⁶⁷接靈光, 酌醴⁶⁸惟勤舉祿將⁶⁹, 文德武功皆寓舞, 自然綴兆⁷⁰合彝章⁷¹。舞分《八佾⁷²》樂章

56) 영황(靈貺): 신령(神靈)이 복을 내리는 것.

57) 신륵(宸旒): 제왕의 관(冠). 여기서 제왕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58) 농사(農師): 상사(上士). 주대(周代) 관명(官名)으로 하대부(下大夫)보다 한 단계 낮고 중사(中士)보다 한 단계 높은 직위, 혹은 고대 농사(農事)를 장관(掌管)하던 관리.

59) 암암(岩岩): 위엄이 있는 모양.

60) 섭대종백(攝大宗伯): 대종백(大宗伯)은 주대(周代) 육경(六卿)의 하나로 국가의 제사, 전례(典禮) 등의 일을 맡아 하였다. 명청(明清) 시기에는 예부상서의 속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섭(攝)’이라는 것은 이러한 직책을 겸직하여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61) 중선(中單): 고대 시기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 안에 받쳐 입던 속옷의 일종으로 중선(中禪)이라고도 한다.

62) 지합(知閤): 송대(宋代) 합문사(閤門司)를 주관하던 관원으로 조회(朝會), 유행(遊幸), 연회(宴會) 등에 관한 일을 장관하였는데, 정식 명칭은 지합문사(知閤門事)이다.

63) 늑백(勒帛): 실로 엮어 만든 허리띠의 일종.

64) 조복(皂服): 예전에 직위가 낮은 관리가 입던 흑색 의복.

65) 문무(文舞): 고대 궁정(宮廷) 아악무(雅樂舞)의 하나로 교묘제사(郊廟祭祀)에 쓰였다.

66) 포조돌(鋪竈突): 부엌의 연통.

67) 혁혁(奕奕): 밝은 빛이 번쩍이는 모습.

68) 작례(酌醴): 술을 따르다.

69) 관장(祿將): 왕을 보조해 향기로운 술을 땅에 뿌려 신에게 복을 구하는 관제(祿祭)를 돕

諧, 執羽⁷³)揚干⁷⁴)古意回. 莫道綉儀無祖述⁷⁵), 兩階曾格有苗⁷⁶)來.”樂作, 先擊祝⁷⁷), 以木造, 如方壺, 畫山水之狀, 每奏樂擊之, 內外共九下. 樂止, 則擊敵⁷⁸), 如伏虎形, 脊上皆鋸齒, 一曲終, 以破竹刮之, 而樂止. 明堂樂章, 奏《乾安》·《景安》·《嘉安》·《廣安》·《化安》·《豐安》·《光安》·《禧安》·《彰安》·《德安》·《正安》·《熙安》之曲. 凡樂曲共十九章, 明禋祀俱用十二章; 景靈官及太廟四章, 互相更易以奏, 皆‘安’字爲名, “清廟靈宮暨禋壇, 伶工⁷⁹)總屬奉常官. 八音⁸⁰)欲格神人悅, 樂曲更成十九安.”明堂樂舞, 文德武功之舞, 凡登歌宮架樂, 全憑押樂官掌之. 凡大祀用登歌宮架樂, 差攝太常丞二員, 一則充壇上舉麾, 一則充壇下舉麾. 又差協律郎二員, 一則視壇上舉麾, 一則視壇下舉麾. 則拜. “宮架登歌屬奉常, 舉麾押樂選丞郎. 殿堂互奏鈞天樂, 亟拜精虔⁸¹)合典章.”一常直官於小幄次奏請行禮, 導引上至殿階下, 惟有禮直及大禮使兩使扶持上登殿, 其知

는 것.

- 70) 칠조(綴兆): 고대 악무(樂舞) 중 춤추는 사람의 행렬(行列) 위치.
- 71) 이장(彝章): 옛 전적(典籍), 상례(常例).
- 72) 팔일(八佾): 고대 천자가 사용하던 악무(樂舞)의 일종으로 가로, 세로 8명씩 모두 64명이 열을 지어 추던 춤이었다. 《논어(論語)·팔일(八佾)》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공자께서 제씨에 대해 말하였다. 그의 마당에서 팔일무를 춘다고 하는데, 이를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참을 수 없단 말인가!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주희(朱熹)가 집주(集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佾)이란 춤의 열을 뜻하는 것으로, 천자는 8열, 제후는 6열, 대부는 4열, 사는 2열이다[舞列也; 天子八, 諸侯六, 大夫四, 士二].”
- 73) 우(羽): 고대 평 깃털로 만든 춤 도구의 하나. 문무(文舞)를 추는 자가 사용하였다.
- 74) 간(干): 방패.
- 75) 조술(祖述): 본받다.
- 76) 유묘(有苗): 고대 국가의 이름으로 삼묘(三苗)라고도 하였다. 요(堯), 순(舜), 우(禹) 시대 남쪽의 비교적 강했던 부족으로 전설에 의하면 순 임금 때 삼위(三危)로 이주 당했다고 한다. ‘유(有)’는 접두사(接頭詞).
- 77) 축(祝): 고대 악기 일종으로 나무로 만들었으며, 그 형태는 네모난 그릇 모양으로 연주가 시작될 때 축을 쳤다.
- 78) 어(敔): 고대 악기 일종으로 모양은 웅크린 호랑이처럼 생겼고, 그 등에 툭니 모양의 목판이 있어 대나무 편으로 이곳을 긁어 소리를 냈고, 연주가 끝나려 할 때 어를 쳐서 음악 끝냈다.
- 79) 영공(伶工): 악사(樂師) 또는 배우.
- 80) 팔음(八音): 중국 고대에 있어 악기의 통칭. 일반적으로 쇠[金], 돌[石], 현[絲], 대나무[竹], 박[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 등 여덟 가지 다른 재질로 만들기에 ‘팔음’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음악이란 의미로도 쓰인다.
- 81) 정건(精虔): 성실하고 공경하는 모습.

閣·御帶·環衛, 俱侍立殿檻下伺駕回。上登殿, 詣正北一位昊天上帝前拜跪, 攝殿中監察東向一拜, 進爵, 再拜。復次引詣正東太祖·太宗·高宗位拜跪, 進爵, 並行初獻禮, 駕繞升殿, 宮架樂止, 則殿上登歌樂作。駕降殿, 則登歌樂止, 宮架樂復作。"龍袞初升殿陞墀, 奉天酌祖歲皇儀。虎關夕啓咸來燕, 從坐紛綸衛百祇。" 亞獻差親王代行禮。理廟朝委皇太子充亞獻, 其祭服準制度。按, 《宋朝會要》: "服袞冕⁸²⁾, 垂白珠九旒, 章大小雙綬, 謂之'袞冕'。" "□□珠旒薦二觴, 九章雙綬表儲皇⁸³⁾。由來欽若⁸⁴⁾爲家法, 嗣復⁸⁵⁾無疆⁸⁶⁾有道長。" 亞獻畢, 禮直官再奉請駕升殿, 詣昊天上帝位前, 左右二員, 奉玉冊官登冊而跪。上拜跪奠酒⁸⁷⁾, 執玉圭而跪, 中書舍人讀玉冊。正謂"幣玉高擎授上公, 發函請冊頌成功。捧來寶爵親監滌, 醴酒浮香琥珀紅。" 上復降殿小幄內。終獻, 差親王行禮。"祇事明禋⁸⁸⁾與几筵⁸⁹⁾, 禮成三奠樂重宣。欲令廟祐⁹⁰⁾如磐固, 宗祀⁹¹⁾先來肺腑⁹²⁾賢。" 終獻畢, 禮直官奏請上登殿, 飲酒受胙, 進玉爵跪進, 上跪受。"穹皇鴻福萬年觴, 三咽仍分飲胙香。斂錫庶民皆協極, 受元純福喜新嘗。" 飲胙畢, 送神。"《景安》⁹³⁾樂舞衆靈旋, 誠達穹旻⁹⁴⁾徹豆籩⁹⁵⁾。羽葆⁹⁶⁾霓旌⁹⁷⁾回盼獨, 福流鴻祉⁹⁸⁾萬斯年。" 上降殿, 詣小幄前拱立則望⁹⁹⁾燎¹⁰⁰⁾,

82) 곤번(袞冕): 곤룡포와 면류관. 고대 제왕과 상공(上公)의 예복(禮服)과 예관(禮冠).

83) 저황(儲皇): 황태자(皇太子), 세자(世子).

84) 흠약(欽若): 삼가

85) 사복(嗣復): 황위(皇位)를 계승하다.

86) 무강(無疆): 무궁(無窮), 영원.

87) 진주(奠酒): 땅에 술을 뿌려 신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

88) 명인(明禋): 깨끗하고 경건한 제사.

89) 계연(几筵): 궤석(几席). 제사에 쓰이는 명기(明器)의 일종인 안석(几)과 자리(席)를 가리키는 것으로 결국 제사에서의 자리를 의미한다.

90) 묘석(廟祐): 종묘(宗廟) 중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석실(石室).

91) 종사(宗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

92) 폐부(肺腑): 폐부(肺附). 제왕의 종실(宗室) 중 가까운 친척.

93) 경안(景安): 악곡(樂曲)의 일종으로 강신(降神) 의식 때 연주되었다.

94) 궁민(穹旻): 하늘.

95) 두번(豆籩): 제기(祭器)의 일종으로 나무로 만든 것을 '두(豆)', 대나무로 만든 것을 '번(籩)'이라 하였다.

96) 우보(羽葆): 천자의 의장품 중 하나로 새 깃털을 연결하여 꾸민 화개(華蓋).

97) 예정(霓旌): 천자의 의장품 중 하나로 오색의 새 깃털을 엮어 만든 기치(旗幟).

98) 홍지(鴻祉): 홍복(鴻福). 즉 커다란 복.

99) 망(望): 고대 제사의 일종으로 멀리 산천(山川), 일월(日月), 성신(星辰)에 제사를 지내는 것.

上殿禮科幣帛玉冊，并由右階而下。南去有燎爐，上有一人點燭諸物，入爐焚之。殿側與廡廊陪祀天星百神，陪祀官及執事官皆面北而立班，贊者喝卿拜，衆俱拜而出。上自小次前登小輿，還大次，更服登輦，教樂所伶人在殿門排列，奏慶禮成曲。一甲士舞禮成曲破訖，伶人進口號，樂復作，麗正門外諸軍鼓吹俱作，聲震天地。輦入垂拱殿，宰執百官常服入賀，大起居¹⁰¹⁾，蹈舞九拜，嵩呼稱壽。樞密宣制¹⁰²⁾曰：“履茲新慶，與卿等同。”攝禮部郎奏解嚴於殿前，宰臣百官出麗正門外幕位，伺候天明，入登門放赦。

10. 명당(明堂)의 제사가 끝나면 성문 위로 올라가 대사면을 내리다

재집(宰執)과 백관(百官)들은 여정문(麗正門)의 누대(樓臺) 아래에서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천자가 행차하면 궁가(宮架)의 음악이 시작되었고, 천자는 누대에 올랐다.

천자의 선개(扇蓋)가 처음으로 누대 밖에 도착하여,
주렴을 말고 높이 앉아 헌(軒)에 임한다네.
제사를 올려 사방의 제후국에게 그 혜택을 베푸시는데,
먼저 백성들에게 죄 사해주는 은혜를 보이시네.

100) 요(燎): 고대 제사의 일종으로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

101) 대기거(大起居): 송대(宋代) 제도로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이 5일에 한 번씩 조회에 들어와 황제를 알현하는 것. 송대 송민구(宋敏求)의 『춘명퇴조록(春明退朝錄)』 권중(卷中)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본조(本朝)의 조회(朝會) 제도. 문덕전(文德殿)을 외조라 하고, (...중략...) 수공전(垂拱殿)을 내전이라 하였다. 재신(宰臣)과 추밀사 이하 요직에 있는 자들, 그리고 무반(武班)은 매일 알현을 하였는데 이를 일러 ‘상기거(常起居)’라 하였다. 매 5일마다 문무 관원들이 정사를 보았는데, 정사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내전에 드는 것을 일러 ‘백관대기거’라 하였다[本朝視朝之制: 文德殿曰外朝, (...中略...) 垂拱殿曰內殿, 宰臣樞密使以下要近職事者, 并武班, 日赴, 是謂‘常起居’, 每五日, 文武朝臣釐務, 令釐務并赴內朝, 謂之‘百官大起居’].”

102) 선제(宣制): 천자의 조명(詔命)을 선포하다.

[扇蓋初臨樓檻外, 捲簾敞坐正臨軒, 要令祭澤該方國, 先示堯民肆罪恩.]

3미터 정도 길이의 장대가 곳곳이 서있었고, 그 위에는 홍번(紅幡)을 물고 있는 금계(金雞)가 받침(盤)위에 서 있었고, 그 위에 “황제만세(皇帝萬歲)”라고 써어 있었다. 받침 밑으로는 붉은 비단 동아줄(紅綵索)이 네 모퉁이로 늘어뜨려져 있어 네 명의 홍건(紅巾)을 쓴 백희인(百戲人)들이 앞을 다투어 줄을 타고 올랐는데, 먼저 금계를 잡는 이가 큰 소리로 천자의 은혜에 감사함을 외쳤다. 다음과 같은 옛 사람의 시가 있다.

하늘을 뚫고 올라간 백 척 받침을 세우니,
문신을 한 몸으로 날래게 닭 있는 장대를 오르다네.
금번을 쟁취하여 높이 소리친 뒤 내려오니
백성들 모두 즐거워하며 우러러 본다네.
[立起青雲百尺盤, 文身驍勇上雞竿. 嵩呼爭得金幡下, 萬姓均歡仰面看.]

어루(御樓) 위에서 붉은 비단줄(紅錦索)을 타고 금봉(金鳳)이 사면문서를 입에 물고 내려와 선사대(宣赦臺) 앞에 이르면 통사사인(通事舍人)이 이를 받아 읽었다. 대리시(大理寺)와 안무사(安撫司), 그리고 전운사(轉運司) 등에서 간혀 있던 곤장 맞을 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갈의(褐衣)를 입히고, 하화가(荷花枷)를 씌웠다. 옥졸(獄卒)은 꽃을 꽃고 문아래 엎드려 성지(聖旨)를 받은 뒤 이들을 석방하였다.

형벌에 관대하여 죄를 깨끗이 사면하여 형을 가하지 않고,
성심(聖心)의 어짊과 용서를 백성에게 베푸신다네.
성지를 전달하사 화가(花枷)를 벗기고 나니,
만세 소리, 쾌활한 소리 연이어 들린다네.
[湯網蠲除不任刑, 聖心仁恕給民生, 傳宣脫去花枷後, 萬歲聲連快活聲.]

누대 위의 주렴이 이미 내려오고, 산(繖)과 선(扇)이 들어가면 천자는 궁중으로 돌아갔다. 악사들의 음악이 크게 진동하면서 천자가 궁궐로 들어오는 것

生, 傳宣脫去花枷後, 萬歲聲連快活聲。”樓上簾已垂, 繖扇已入, 上回內, 伶人樂大震, 迎駕入內。“赦頒郡邑急翻行, 迎拜宣傳廣聖仁. 四海一家沾大霈¹¹¹⁾, 盡令黎庶¹¹²⁾慶維新!”

11. 교사(郊祀)의 해, 천자가 청성(青城)의 단성전(端成殿)에 머물며 교사(郊祀)의 예(禮)를 행하다

이전 함순(咸淳) 연간에 도종(度宗)은 친히 남교(南郊)의 제사를 진행하였다. 정월(正月) 초하루 뒤 첫 번째 신(辛)의 날에 의식을 행하였다. 행사 삼일 전 대경전(大慶殿) 안에서 치재(致齋)를 하고, 그 다음 날 천자는 경령궁(景靈宮)에 행차해 보고를 드렸다. 태묘(太廟)로 돌아가 치재(致齋)를 하고, 삼조(三祖)가 출실(出室)하기를 주청하였다. 셋째 날에는 태묘에서 옥로(玉輅)에 올랐고, 금로(金輅), 상로(象輅), 혁로(革輅), 목로(木輅)의 네 수레가 종행(從行)하여 가회문(嘉會門) 밖으로 행차하였다. 교대(郊臺)의 옆에 있는 청성(青城) 단성행전(端誠行殿)에서 치재를 드렸다.

통천관(通天冠)에 꿰어 놓은 보주(寶珠)는 반짝반짝,
오채(五綵)의 구름 속에 경필(警蹕) 소리 드높네.
만기(萬騎) 천관(千官)이 일제히 따르니.

쪽으로 갈 것들은 오른쪽으로, 높이 올라갈 것들은 높이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올 것들은 내려가거라. 나는 천명을 어긴 것들만 잡겠노라.’ 한수(漢水) 이남 지역 나라들이 이를 듣고 말하였다. ‘탕 임금의 덕이 금수에까지 미치는구나.’ 40개 나라가 탕 임금에게 귀순하였다(湯見祝網者置四面. 其祝曰: ‘從天墜者, 從地出者, 從四方來者, 皆離吾網.’ 湯曰: ‘嘻, 盡之矣, 非桀其孰爲此也!’ 湯收其三面, 置其一面, 更教祝曰: ‘昔蛛蝥作網罟, 今之人學紆. 欲左者左, 欲右者右, 欲高者高, 欲下者下, 吾取其犯命者.’ 漢南之國聞之, 曰: ‘湯之德及禽獸矣.’ 四十國歸之.)

110) 견제(鑷除): 제거, 면제(免除), 깨끗하게 제거함.

111) 대패(大霈): 큰 비가 쏟아지다.

112) 여서(黎庶): 백성, 서민, 여민(黎民).

군왕께서 오늘 단성(端誠)에 행차하신다네.

[通天冠綴寶珠明, 五綵雲中警蹕聲. 萬騎千官齊導從, 君王今夜幸端誠.]

소위 청성(靑城)이라는 것은 단지 청포(靑布)만을 써서 만든 천막(天幕)으로 벽돌 쌓은 무늬를 그려 넣고, 이를 둘러 성궐(城闕)을 만든 것일 뿐이었다. 정명원(淨明院)을 행궁(行宮)으로 삼고, 단성행전(端誠行殿)을 지어 하루의 행차에 대비한 것이다. 예전 동경(東京)에서는 선화(宣和) 연간에 토목(土木)을 사용하여 행전(行殿)을 짓고, 청포막(靑布幕)으로 이를 둘러쌌었다. 의장(儀仗)과 노부(鹵簿)는 행궁(行宮)에 이르기까지 배열해 있었고, 철기(鐵騎)가 둘러싸서 시위(侍衛)하였는데 삼아(三衙)가 주관하는 위병(衛兵)들이 나누어 시위하도록 명하였다.

용맹한 군사 만려(萬旅)가 교외(郊外)를 호위하고,

특별히 도문(都門)을 경계하며 일찌감치 빗장을 열었네.

삼아(三衙)에 각각 명령을 내려 직접 주관(主管)하니,

행전(行殿)을 호위하고 밤에 경계를 서 모두 편안하다네.

[貔貅萬旅護郊垌, 特戒都門早放扃. 分命三衙親典領, 衛嚴行殿悉安寧.]

천자께서는 청성행궁(靑城行宮)에 머무시는데, 도성 밖으로 삼 리가 떨어져 있었다. 총무관(總務官)과 지항주부(知杭州府), 황성사(皇城司)의 제점관(提點官)은 밤이 되면 교대로 와서 위병(衛兵)들을 관장(管掌)하였는데 이를 일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화려한 장식의 말을 타고 궁성을 나왔다가,

다시 용성(甕城) 문으로 들어가 연이어 궁전(宮殿)으로 나아간다네.

구슬 모자(珠帽)와 수놓은 옷(繡衣) 입은 위병(衛兵)들을 천거(薦舉)하는 곳,

진영마다 이어지는 사방을 진동하는 경례 소리.

[錦鞵金勒出宮城, 還入龍闈綴殿行. 珠帽繡衣提舉處, 連營喏震四山聲.]

또 자줏빛 두건(紫巾)과 붉은 옷(緋衣)을 착용한 병사 천여 인이 있어, 교단

(郊壇) 주위에 흩어져 경비를 섰다. 또 행궁도순검사(行宮都巡檢使)를 파견하여, 갑군(甲軍)을 통솔하여 순라(巡邏)를 돌게 하였고, 밤이 되면 엄경(嚴更), 경장(警場), 갈탐(曷探)을 하는 것이 명당(明堂)의 의식과 똑같이 하였다. 행궁(行宮) 앞에는 개천기(蓋天旗)가 청성(靑城)의 어가(御街) 가운데 서 있었다.

대기(大旗)가 십육 미터 높이로 솟아 별들의 궤도와 함께 찬란하고,
원단(圓壇) 여덟 계단 앞에 높이 게양되었네.
천자의 덕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닿지 않는 곳 없어.
이에 물건을 갖추게 하여 순건(純乾)의 조짐을 점친다네.
[大旗五丈粲星躔, 高揭圓壇八陞前. 君德天臨無不盡, 故令備物象純乾.]

그 날 밤 등은 밝고, 날씨는 맑고 깨끗하였으며, 별들은 더욱 반짝거리고, 구름은 갖가지 모양을 뿜내었다. 예전 사람이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원만한 날을 선택하여 큰 제사(泰禋)를 올리니,
사방의 관개(冠蓋)가 도성으로 모여드네.
하늘을 감동시킨 성덕(聖德) 장차 무엇으로 증명하리요?
낮은 봄과 같고, 밤은 맑고 밝다네.
[涓選休成舉泰禋, 四方冠蓋集都城. 格天聖德將何驗? 晝日如春夜朗明.]

삼경이 되자 섭대종백(攝大宗伯)이 중엄(中嚴)과 외관(外辦)을 상주하였고, 예직관(禮直官)은 의식을 진행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

오책(烏幘), 주의(朱衣)를 이끌어 처마[簷] 가까이 오게 하고,
외관(外辦)과 중엄(中嚴)이 갖추어졌음을 상주해 알린다네.
금자(金字)를 적은 아패(牙牌) 물러난다는 말 전해지자,
천자 천막(帝幄)의 환관(宦官)들이 주렴을 걷으라고 호령하네.
[烏幘朱衣引近簷, 奏知外辦與中嚴. 對傳金字牙牌退, 帝幄中官喝卷簾.]

천자께서는 단성전(端誠殿)을 나와 안련(安輦)에 오르고, 남쪽으로 가다가 직각으로 꺾어 서쪽으로 백 보가면 바로 교단(郊壇)이었다. 외유(外墻)의 동문(東門)으로 들어가 제이유(第二墻)에 도달하면 그 안 남쪽에 커다란 천막(帷次)이 있었다. 천자가 대차(大次)에 행차하여 제복(祭服)으로 갈아입는 것을 끝내면, 예직관(禮直官), 지함문사(知閣門事), 어대(御帶), 환위관(環衛官), 대례사(大禮使)가 앞에서 인도하였다.

천자의 발걸음 느릿느릿 곤상(袞裳)을 끌고,
 유주(旒珠)와 규옥(圭玉)은 아주 엄숙하고 공경하다네.
 명덕(明德)을 드날리고자 하니 그 향기 멀리 퍼지고,
 천자가 걷는 황도(黃道)에는 먼저 서뇌(瑞腦)의 향기 휘날리네.
 속건(屬鞮)은 특별히 은당(銀獰)을 고르고,
 반압(班壓)의 주의(朱衣)는 봉상(奉常)과 함께 하네,
 앞에서 천자를 인도하여 친히 대사(大祀)를 진행하니,
 금퇴(金槌)와 철갑(鐵甲)이 그 빛을 다투네.

[天步舒徐曳袞裳, 旒珠圭玉儼齋莊. 欲騰明德唯馨遠, 黃道先揚瑞腦香. 屬鞮特特選銀獰, 班壓朱衣與奉常. 前導袞衣親大祀, 金槌鐵甲鬪爭光.]

천자는 단 밑의 조그만 천막으로 갔는데 이 천막을 일러 '소차(小次)'라고 하였다. 그 안에는 어좌(御座)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좌에 오르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라고 주청을 드렸다. 예직관(禮直官)이 예과(禮科)를 재촉해 판엄(辦嚴)을 하게 하고 경양종(景陽鐘)을 울리게 했는데, 그 소리가 무척 크고 맑았다. 그 종은 절이나 도관의 종루(鐘樓)에 있는 것처럼 컸는데, 그 종의 윗부분에는 무리지어 빛나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주조하였고, 그 중간에는 오로(五輅)와 의장(儀仗)을 주조해 넣었으며, 그 밑에는 육가(六街)와 삼시(三市)를 주조해 넣었다.

예식을 엄숙히 하여 높은 곳에 올라 고귀하신 영령(英靈)들께 제사지내고,
 대추와 밤, 그리고 희생물(犧牲物)로 덕행(德行)의 향기를 바친다네.
 준고(鼗[발음은 준]鼓)와 경종(景鐘)은 절주(節奏)를 재촉하고,

크게 울리는 소리 어둠을 뚫고 나간다네.

[禮嚴登極享高靈, 棗栗牲牢薦德馨. 轟鼓景鐘催節奏, 洪聲考擊徹青冥.]

그 후 궁가(宮架)의 음악이 시작되었고, 천자에게 교단에 올라가 행사를 진행할 것을 주청 드렸다. 그 교단은 다음과 같았다.

하늘을 본떠 제도를 만들고, 환구(圜丘)를 쌓고,

교외에서 천자가 향음주하는 것은 주(周)나라를 본받았다네.

단의 계단 높이 솟아 하늘에 다다르니,

신선의 마차 신령을 맞이한다네.

[象天立制築圜丘, 饗帝於郊法有周. 壇陞崇高霄漢近, 雲車風馬接靈遊.]

단(壇)은 그 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고, 72개의 계단이 있다. 단면(壇面)은 그 직경이 9미터 정도 되었다. 단에는 네 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정남(正南)을 일러 오계(午階), 동쪽을 일러 묘계(卯階), 서쪽을 일러 유계(酉階), 북쪽을 일러 자계(子階)라 하였다. 단 위에는 황색 요(黃褥) 위에 네 분의 신위(神位)를 모셨는데, 창궁(蒼穹)을 필두로 하여 태조(太祖), 태종(太宗)을 모시고, 여기에 고종(高宗)까지 배향(配享)하도록 하였다. 이전 효종(孝宗) 시기, 주(周) 성종(成宗)이 낙양(洛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문왕(文王)을 배향하였고, 한(漢) 무제(武帝)만이 문수(汶水) 가에서 합사(合祠)한 것을 고려하여 지금 고종(高宗)을 추엄(推嚴)한 것이다. 단에는 감실(龕室)이 12개가 있고, 종사(從祀)하는 신위(神位)가 767위에 달했다. 각 신들의 판위(板位)는 주패(朱牌)에 금자(金字)를 썼다.

높이 조종(祖宗)께 보이고, 천성(天星)을 모으고,

큰 산들과 내에는 바야호로 백령(百靈)이 모이네.

금찰(金札)에 밝게 표시한 붉은 판위(板位),

명령을 전달하니 마치 정성(精誠)을 흠향하는 듯하네.

[穹示祖宗萃天星, 岳瀆方維會百靈. 金札明標朱板位, 傳令放佛饗精誠.]

악악(雅樂)은 당(堂)을 좇아 예화(豫和)의 곡을 연주하고,
 악보에 맞춰 정성스런 마음으로 신께 기도하여 악대〔登歌〕와 음을 맞춘다네.
 별과 해를 운행하는 신들 모두 제사 음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은 조용하고 바람 없으며, 바다에는 파도일지 않는다네.
 [雅樂遵堂奏豫和, 聲文昭假協登歌. 星驅日御均歆顧, 天靜無風海不波.]

천자가 단에 오르면 단상 악대인 등가(登歌)의 음악이 시작되었다. 초헌례(初獻禮)를 마치고 단을 내려와서 친왕(親王)에게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도록 하였다. 천자는 다시 단에 올라 옥책(玉冊)을 읽고, 무릎을 꿇고 제사 지내는 것을 끝내고 다시 단을 내려왔다. 친왕(親王)이 삼헌례(三獻禮)를 끝내고 단에 올라 음복(飲福)하고, 제사 지낸 고기를 받으면(受胙) 신을 보내는〔送神〕 것이 끝났다. 그리고 천자가 단에 올라 소차(小次) 앞에 섰다.

군왕(君王)을 청해서 밝은 빛을 바라보고,
 예식은 엄격하여 하늘과 땅에 제사지내는 것 각각 그 상황에 맞게 한다네.
 봉사관(奉常官)은 돕고 인도하여 반(班)을 이끌어 퇴장하고,
 환패(環珮)가 부딪쳐 땡땡거리는 소리 밤이 되도록 멈추지 않네.
 [邀請君王燎光, 禮嚴播壑各隨方. 奉常贊引令班退, 環珮琤琕夜未央.]

그 예과(禮科), 폐백(幣帛), 옥책(玉冊)은 유계(西階)를 통해 내려와 남쪽의 유문(墻門) 밖으로 나갔다. 단과는 16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3미터 정도 되는 요로(燎爐)가 있었다. 명당(明堂)의 제사(明禋)처럼 점검하는 소리를 외친 뒤 화로(火爐)로 들어와 불을 붙였다. 그 교단(郊壇)은 삼층으로 네 방향에 계단이 있는데 12개의 감등(龕燈)과 십이궁신(十二宮神)이 있었다. 내유(內墻)와 외유(外墻)에 모두 신위(神位)를 설치하였는데, 매 위(位) 마다 판위(板位) 하나, 초 한 개, 작(爵) 한 개, 낮은 탁자(矮桌) 한 개가 있고, 희생(犧牲) 둘, 변(籩)과 두(豆)가 하나씩 놓여 있었으며, 폐(幣)는 각각 차이가 있었다. 배사관(陪祀官) 및 봉사(奉常)를 하는 관리의 의식을 돕고, 불사르는 것이 끝나면 궁가의 음악이 멈췄다. 북과 관악기가 울리기 전, 단하(壇下)는 숙연(肅然)하

였고, 오직 산들 바람에 부딪혀 나는 패환(珮環) 소리뿐이어서 마치 하늘의 신선이 강림(降臨)한 듯 그 청아(清雅)함이 그지없었다. 이 때 근시(近侍), 금위(禁衛), 쾌행(快行)이 등촉(燈燭) 2-300개를 들고 황제를 둘러싼 벽을 만들었는데 그 밝기가 대낮과 같았다. 천자는 안련(安輦)에 올라 대악(大幄)에 행차해 옷을 갈아입으면, 대안련(大安輦)에 오를 것을 주청받았다. 연(輦)은 옥로(玉輅)처럼 만들었으나 바퀴가 없었다.

구름과 용 무늬가 있는 빛나는 엽(葉)은 삼중으로 겹쳐있고,
 등나무에 금꽃(金花) 새겨 넣으니 어좌(御座)가 새롭네.
 열네 개 구슬 중간 중간 매듭지어,
 사방으로 커다란 띠 늘어뜨리니 사람들 눈을 부시게 하네.
 [雲龍耀葉疊三層, 藤織金花御座新. 十四穗毬珠間結, 四垂大帶耀輝人.]

이 연은 당제(唐制)를 따른 것으로 모두 오번(五番)의 연관(輦官) 450명을 썼는데, 그 복장(服裝)이 노(輅)를 수행하는 위사(衛士)와 같았다. 교악소(敎樂所)의 악인(樂人)들을 외유(外墻)의 동쪽 문에 배열하여 음악을 연주하며 선도하게 하였고, 천자는 이들을 따라 청성전(靑城殿)으로 돌아가 제사가 끝난 것에 대한 하례(賀禮)를 받았다.

자작나무 불빛 만 개의 촛불과 함께 밝고,
 대안보련(大安寶輦)이 단성전(端誠殿)에 들어서네.
 백관(百官)들은 단지(丹墀) 아래에서 배례하며 춤추고,
 땅을 울리는 선소곡(仙韶曲) 연주되니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네.
 [樺焰光隨萬燭明, 大安寶輦入端誠, 百寮拜舞丹墀下, 震地仙韶文禮成.]

앞뒤에 있는 구리 징(鈺鏡), 예가 이루어졌음을 아뢰고,
 선도를 따라 법가(法駕)는 청성(靑城)으로 돌아가네.
 순음(純音)은 구름 밖까지 뚫고 지나가니,
 균천(鈞天)의 경축 음악 소리가 아닐는지.
 [前後鈺鏡奏禮成, 導隨法駕回靑城. 純音直徹雲霄外, 疑是鈞天慶樂聲.]

천자는 단성전(端誠殿)에 행차하였고, 재집(宰執)과 백관(百官)들은 배무(拜舞)를 하며 예가 이루어졌음을 경축하였다. 추밀원(樞密院)의 신하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조정(朝廷)에서 제왕의 조명(詔命)을 선포하시니 모두들 국궁(鞠躬)을 하고,
이번의 새로운 경사를 경(卿)들과 함께 즐기네,
신의 마음 찬미하니 장차 이를 어찌 보답하리오?
원컨대 천자께서 하늘같은 수명을 누리시길.
[宣制班庭盡鞠躬, 履茲新慶與卿同, 臣心歸美將何報, 願祝君王壽億穹.]

백관(百官)의 행렬이 퇴장하였다.

법궁(法宮)은 조밀하게 중림(重簾)을 보호하고,
무릎 꿇고 아패(牙牌)를 쥐고 해엄(解嚴)을 상주하네.
반(班)은 끝나고, 어가(御駕)는 움직이며, 연거(蓮炬)는 따뜻하니,
예제(禮制)의 위용(威容)을 발돋움하여 바라보네.
[法宮邃密護重簾, 跪執牙牌奏解嚴, 班捲駕行蓮炬煖, 禮容猶自聳觀瞻.]

날이 밝으면 의장(儀仗)과 노부(簿簿)의 갑기(甲騎)들이 대열을 거두어 여정문(麗正門)으로 돌아왔다. 천자는 대안련(大安輦)에 올랐는데 좌우에 두 명의 어약(御藥)이 시립(侍立)하였고, 앞에서는 교악소(教樂所)의 악인들이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뒤에서는 균용직(鈞容直) 및 부오(部伍)의 북과 관악(管樂)들이 연주를 하면서 뒤를 따라왔다. 천자가 연에 오르면 연 앞에 있는 시중(侍中) 한 명이 연을 오르내리는 것을 상주 드리면서 뜻을 받들었다.

자단(紫壇)에서 철수한 후 다시 천자는 궁으로 돌아오고,
황첩(黃牒)을 내리기 전 시중(侍中)에게 명하시네.
천자 오르내리는 곳에서 밀착 경호하고,
노(輅) 앞에서 뜻을 받들니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네.
[紫壇徹復駕還宮, 黃牒前期命侍中, 密護袞衣升降處, 輅前承旨示恩隆.]

오로(五輅)는 연(輦)을 뒤따라 여정문(麗正門)으로 돌아가고, 천자는 문 안으로 들어가 연에서 내리셨다. 평장(平章), 재집(宰執), 백관(百官)들은 문 아래에 열 지어 서서 기다렸다. 천자는 누대에 올라 헌(軒)에 임해서 금계간(金雞竿)을 세우고 사면령을 내렸는데 이는 명당의 제사 때와 같았다. 황태후(皇太后)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주렴을 내리고 천막을 설치한 내정(內庭)의 옆,
 자모(慈母)가 친히 오셔서 왕위를 계승한 천자를 보신다네.
 돌연 침식을 돌보시고, 노고를 치하하시고,
 왕래하며 서로 신분 높은 환관(宦官)들을 보내네.
 [垂簾設幄內庭旁, 慈母親來看嗣皇, 忽奉起居仍問勞, 往來互遣貴貂隨.]

천자의 가마 회궁하자 육궁(六宮)에 알려,
 내동문(內東門)의 엄막(簾幙)에는 용이 선회하며 춤추고 있다네.
 대안련(大安輦)에서 용안(龍顏)을 우러러보고,
 상서로운 일 원만히 마치니 단정한 태도를 앙모하네.
 [欽看回轡報六宮, 內東簾幙舞翔龍, 大安輦上瞻天表, 熙事圓成尚正容.]

郊祀年駕宿青城端成殿行郊祀禮¹¹³⁾

向於咸淳年間, 度宗親饗南郊祀, 用正月朔正, 係上辛日¹¹⁴⁾行事. 前三日, 致齋於大慶殿內, 次日駕詣景靈宮奏告, 回太廟致齋, 奏請三祖出室. 第三日, 自太廟升玉輅, 其金·象·革·木四輅從行, 幸嘉會門外, 至郊臺次側青城¹¹⁵⁾端誠行殿致

113) 이 조는 《동경몽화록》 권10 <황제가 교단(郊壇)에 가 예(禮)를 드리다> 조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14) 용정월삭정, 계상신일(用正月朔正, 係上辛日): 본권 <명당(明堂)의 인년(禋年), 수레와 코끼리의 예행연습> 조 주 14)를 보면 한대(漢代) 이후 송대 명당에서 행한 제사는 9월의 첫 번째 신일[上辛日]에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함순연간에는 9월이 아닌 정월의 상신일에도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다.

115) 청성(青城): 송대(宋代)의 재궁(齋宮) 이름으로 하나는 남熏문(南熏門) 밖에 있었는데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재궁이었고, 이를 남청성(南青城)이라 불렀다. 또 하나는 봉구문(封丘

齋¹¹⁶). “通天冠綴寶珠明, 五綵雲中警蹕聲. 萬騎千官齊導從, 君王今夜幸端誠.” 所謂青城, 止以青布爲幕, 畫堦¹¹⁷之文, 旋結城闕, 以淨明院爲行宮, 建端誠行殿, 以備一日之幸. 舊東都¹¹⁸宣和¹¹⁹間用土木蓋造行殿, 以青布幕圍之. 儀仗鹵簿排列至行宮, 鐵騎圍繞衛護, 分命三衛¹²⁰主管衛兵. “貔貅¹²¹萬旅¹²²護郊坰¹²³, 特戒都門早放扃¹²⁴. 分命三衛¹²⁵親典領¹²⁶, 衛嚴¹²⁷行殿悉安寧.” 上宿青城行宮¹²⁸, 在都城外三里, 總務官與殿帥皇城司¹²⁹提點官¹³⁰, 遇夜互行,

門) 밖에 있었는데 땅에 제사 지내는 재궁으로 북청성(北青城)이라 불렀다. 재궁이란 천자가 제사를 올리기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재계(齋戒)를 하기 위해 설치한 궁전을 의미한다.

116) 치재(致齋): 제관(祭官)이 된 사람이 사흘 동안 몸을 깨끗이 가지는 것.

117) 추체(整砌): 벽돌을 사용하여 쌓은 담.

118) 동도(東都): 북송의 수도 개봉(開封). 동경(東京)이라고도 함.

119) 선화(宣和): 북송 휘종(徽宗)의 연호로 기간은 1119-1126년.

120) 삼위(三衛): 평범사 본 《몽랑록》에 따르면 원문은 ‘삼위(三衛)’로 나와 있지만 ‘삼위’라는 것은 여기에 마땅한 의미가 없기에 다음에 나오는 시의 ‘삼아(三衛)’로 고쳐 해석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삼아’란 전전사(殿前司), 시위마군사(侍衛馬軍司), 시위보군사(侍衛步軍司)를 의미하는데 정규군 중 핵심 부대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평범사 본 해석을 따른다.

121) 비휴(貔貅): 옛 전적(典籍)에 나오는 두 종류의 맹수. 일반적으로 용맹한 전사(戰士)에 비유된다.

122) 여(旅): 군대의 편제 단위. 《주례(周禮)·지관(地官)·소사도(小司徒)》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다섯 명을 오라하고, 오가 다섯이면 양, 양이 넷이면 졸, 졸이 다섯이면 여가 된다(五人爲伍, 五伍爲兩, 四兩爲卒, 五卒爲旅).”

123) 교경(郊坰): 교외(郊外).

124) 경(扃): 빗장.

125) 삼아(三衛): 송대 금군(禁軍)을 관장하던 군사 조직으로 전전도지휘사사(殿前都指揮使司), 시위친군마군도지휘사사(侍衛親軍馬軍都指揮使司), 시위친군보군도지휘사사(侍衛親軍步軍都指揮使司)를 합쳐 삼아(三衛)라고 불렀다. 송대의 군제는 금군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금군의 체제는 오대의 천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친위군(親衛軍)의 체제를 확충한 것으로 천자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송의 금군은 전전사(殿前司)와 시위사(侍衛司)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양한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항상 천자의 직속이었는데 천자의 경호, 경성의 방위 및 방화(防火), 전장(戰場)의 출정, 요지의 주둔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전전사의 총사령관을 전전도지휘사(殿前都指揮使)라 하였고, 시위사의 총사령관을 시위친군마보군도지휘사(侍衛親軍馬步軍都指揮使)라 하였으며, 그 밑에 마군도지휘사(馬軍都指揮使)와 보군도지휘사(步軍都指揮使)가 있었다. 전전사의 마군과 보군에는 도지휘사가 없었고 단순히 마군과 보군 지휘사가 있었을 뿐이다. 이 삼자를 삼사(三司) 또는 삼아(三衛)라고 불렀는데, 천하의 병력을 통솔하는 최고 기관이었다.

126) 전령(典領): 주관(主管)하다.

127) 위엄(衛嚴): 위(衛)는 호위하는 것, 엄(嚴)은 밤에 경계를 서는 것을 의미.

提舉衛兵，謂之“錦鞵¹³¹金勒¹³²”出宮城，還入龍闈¹³³綴殿行。珠帽繡衣提舉處，連營喏震四山聲。”又有紫巾緋衣數隊千餘人，羅布郊野守衛。又差行宮都巡檢使，部領甲軍，往來巡邏，至夜嚴更警場喝探，並如明禮式。行宮前立蓋天旗於青城御街中，“大旗五丈粲星躔¹³⁴，高揭圓壇八陛前。君德天臨無不盡，故令備物象純乾。”其夕燈明，天氣清朗，星斗增輝，雲彩繽紛。前人作詩咏曰：“涓選¹³⁵休成¹³⁶舉泰禋，四方冠蓋集都城。格天聖德將何驗？晝日如春夜朗明。”三更時，攝大宗伯奏中嚴外辦，禮直官¹³⁷奏請行事。“烏幘朱衣引近簷，奏知外辦與中嚴。對傳金字牙牌退，帝幄中官¹³⁸喝卷簾。”上出端誠殿，升安輦，南行曲尺，西去百步，乃郊壇，入外壇¹³⁹東門，至第二壇，裏面南一大幄次。駕幸大次，更換祭服畢，禮直官·知閣·御帶·環衛·大禮使導引。“天步舒徐曳袞裳，旒珠圭玉儼齋莊¹⁴⁰。欲騰明德唯馨遠，黃道¹⁴¹先揚瑞腦¹⁴²香。屬鞬¹⁴³特選銀璫，班壓¹⁴⁴朱衣與奉常，前導袞

128) 행궁(行宮): 고대 경성(京城) 이외 지역에 황제가 출행(出行)하였을 때 거주하기 위해 마련하였던 궁전.

129) 황성사(皇城司): 황성사는 황제 직속의 비밀경찰 기구였는데 남송에 들어와서는 제도가 변해 계거(提舉), 제점(提點), 간당(幹當)의 직제가 확립되었다.

130) 제점관(提點官): 황성사의 2인자.

131) 금첨(錦鞵): 비단으로 짠 말안장 밑에 끼는 언치. 화려하게 장식한 말을 가리키기도 한다.

132) 금록(金勒): 금으로 만든 재갈. 말을 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133) 용인(龍闈): 용머리 형상의 포수(鋪首)를 장식한 웅성(甕城)의 문.

134) 성진(星躔):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운행하는 궤도.

135) 연선(涓選): 선택(選擇)하다. 골라 뽑다.

136) 휴성(休成): 원만하게 성공하다.

137) 예직관(禮直官): 태상예원(太常禮院)에 소속된 서리(胥吏)로 의식진행을 담당하였다.

138) 중관(中官): 환관(宦官), 내시(內侍).

139) 유(壇): 제사를 지내는 단(壇)의 바깥에 쌓은 낮은 담으로 남교단(南郊壇)의 바깥에는 삼중으로 된 단 모양의 낮은 담을 만들었다. <송사> 권99에는 교단(郊壇)에서 40미터[25보] 떨어져 그 안에 중유(中壇)와 내유(內壇)가 있다고 적혀 있다.

140) 재장(齋莊): 엄숙하고 공경하다.

141) 황도(黃道): 제왕이 출유(出遊)할 때 걷는 도로. 송(宋) 주밀(周密)의 <무림구사(武林舊事)·대례(大禮)>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천자께서는 곤포동과 먼류관을 착용하시고 소차로 걸어가셔서 오계로 직접 오르셨다. 천자의 발걸음이 닿는 곳 모두 누런 비단을 깔았기에 ‘황도(黃道)’, 즉 ‘누런 길’이라고 하였다[上服袞裳，步至小次，升自午階，天步所臨，皆藉以黃羅，謂之黃道。].”

142) 서뇌(瑞腦): 향료의 일종으로 용뇌(龍腦)라고도 한다. 초산(硝磺)이 산화할 때 장뇌(樟腦)로 바뀌는데 의료용 강심제(強心劑)나 청량제(清涼劑)로도 쓰인다.

143) 속건(屬鞬): 미상.

144) 반압(班壓): 미상.

衣¹⁴⁵)親大祀, 金槌鐵甲鬪爭光.” 上之壇下小幄, 謂之“小次”, 設御座在內, 奏升御座, 少歇, 禮直官催禮科辦嚴, 鳴景陽鐘, 其聲甚大且清. 鐘如寺觀鐘樓者大, 上鑄日月星斗列曜, 中鑄五輅儀仗, 下鑄六街三市於鐘上. “禮嚴登極享高靈, 棗栗牲牢薦德馨. 鼗[持分切]鼓¹⁴⁶)景鐘¹⁴⁷)催節奏, 洪聲考擊徹青冥.” 然後宮架樂作, 奏請上升郊壇¹⁴⁸)行事. 其郊壇“象天立制築園丘, 饗帝於郊法有周. 壇陞崇高霄漢近, 雲車風馬¹⁴⁹)接靈游.” 壇高三層, 有七十二級. 壇面方圓¹⁵⁰)各三丈¹⁵¹). 壇有四階, 正南曰午階, 東曰卯階, 西曰酉階, 北曰子階. 壇上設黃褥四位, 大饗蒼穹¹⁵²), 奉太祖太宗, 配於高宗. 昨孝廟時, 接周成宗祀洛中, 陟配於文王. 惟漢武合祠汶上, 今推嚴於高宗也. 壇龕十二壇, 從祀諸神位七百六十有七, 板位係朱牌金字. “穹示祖宗萃天星, 嶽瀆方維會百靈. 金札明標朱板位, 傳令放佛¹⁵³)饗精誠.” “雅樂遵堂奏豫和¹⁵⁴), 聲文¹⁵⁵)昭假¹⁵⁶)協登歌¹⁵⁷). 星驅¹⁵⁸)日御¹⁵⁹)均歆顧¹⁶⁰), 天靜無

145) 곤의(袞衣): 고대 제왕이나 상공(上公)이 입었던 용이 그려진 예복(禮服). 제왕이나 상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146) 준고(鼗鼓): 군대에서 쓰이던 커다란 북. 발음은 한국어로는 ‘분’, 중국어로는 ‘fén’으로 되어 있으나 《몽랑록》에 ‘지분질(持分切)’로 되어 있기에 ‘준’으로 발음을 적었다.

147) 경종(景鐘): 큰 종. 명대(明代) 송렴(宋濂)의 《봉양부신주대중송(鳳陽府新鑄大鐘頌)》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소위 경종이라 하는 것은 큰 종이다[所謂景鐘, 大鐘也].”

148) 교단(郊壇): 고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흙으로 쌓은 단으로 남쪽 교외에 설치하였다.

149) 운거풍마(雲車風馬): 신선의 마차.

150) 방원(方圓): 직경. 원래 둘레, 주위의 의미가 있으나 평범사본 《몽랑록》의 주를 참고하여 직경으로 해석하였다.

151) 장(丈): 고대 길이의 단위로 10척(尺)이 1장이었다. 송대 1장의 길이는 312cm였다.

152) 창궁(蒼穹): 호천(昊天), 창천(蒼天)을 가리키는 것으로 황천상제(皇天上帝)를 의미한다.

153) 방불(放佛): 한서 예악지에 보이는 단어로 ‘방불(勞勳), 즉 ‘방불하다’라는 의미이다. ‘불(佛)’의 원래 글자는 ‘불(弗) 밑에 심(心)자 형태로 되어 있다.

154) 예화(豫和): 천신(天神)을 제사지낼 때 연주되던 악곡(樂曲)의 일종.

155) 성문(聲文): 일반적으로 음조(音調)를 가리키나 악보 및 가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156) 소가(昭假): 정성스런 마음으로 신에게 기도 하는 것.

157) 등가(登歌): 궁중 악단의 일종인 궁가(宮架)의 음악이 당하(堂下)의 음악인 것과 대비하여 이 악단은 당상(堂上)에서 연주하였기에 ‘등가(登歌), 즉 ‘올라가서 하는 노래’라고 하였다. 이 노래는 조종(祖宗)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수(歌手) 외에 금(琴), 슬(瑟), 종(鍾), 경(磬), 부(拊), 박(搏), 축(柷), 어(敔) 등의 악기로 편성되어 있었다.

158) 성구(星驅): 전설 중의 별 마차를 운행하는 자.

159) 일어(日御): 전설 중의 태양 마차를 끄는 신. 제왕의 마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160) 흠고(歆顧): 신이나 조상의 신령이 제사 음식을 기쁘게 받고 돌봐주는 것.

風海不波。”上登壇，登歌樂作，行初獻禮畢，降壇，委親王行亞獻禮；上再登壇，讀玉冊，跪奠訖，再降壇。親王行三獻禮畢，升壇，飲福¹⁶¹⁾受胙¹⁶²⁾，送神畢。上登壇，立小次前。“邀請君王望燎光，禮嚴燔瘞¹⁶³⁾各隨方¹⁶⁴⁾。奉常贊引¹⁶⁵⁾令班退，環珮琮琤¹⁶⁶⁾夜未央。”其禮科幣帛玉冊，並由西階而下，出南壇門外。去壇百步¹⁶⁷⁾，有燎爐，高丈餘，如明禋，點喝入爐焚之。其郊壇三層四階，有十二龕燈·十二宮神，內外壇俱設神位，每位一板位·一燭·一爵·一矮桌，置牲犧二，籩豆¹⁶⁸⁾一，幣各差。陪祀官及奉常吏贊禮焚燎訖，宮架樂止，鼓吹未作，壇下肅然，惟聞輕風珮環聲，恍若天仙下臨，清雅之甚。維時¹⁶⁹⁾近侍·禁衛·快行，以燈燭二三百枝，列成圍子¹⁷⁰⁾，照如白日。上登安輦，幸大幄更衣，奏請升大安輦，輦如玉輅制度，無輪。“雲龍耀葉疊三層，藤織金花御座新。十四穗珠間結，四垂大帶耀輝人。”此輦按唐制，合用五番輦官四百五十人，服色如挾轡衛士同。以教樂所伶工在外壇東門排列，奏樂導引，駕回青城殿，受禮成賀。“樺焰光隨萬燭明，大安寶輦入端誠，百寮拜舞丹墀下，震地仙韶¹⁷¹⁾文禮¹⁷²⁾成。”“前後鉦鏡¹⁷³⁾奏禮成，導隨法駕

161) 음복(飲福):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사에 사용한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것. 신령(神靈)의 복(福)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음복(飲福)’이라 한 것이다.

162) 수조(受胙): 제사 지낸 고기를 받는 것.

163) 번에(燔瘞): 하늘과 땅에 제사지내는 것. 《한서(漢書)·종군전(終軍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신명을 공경함을 오로지 하고, 하늘과 땅을 받드는 것을 교궁(郊宮)에서 한다. 안사고가 말하였다. ‘번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이고, 예는 땅에 제사지내는 것이다. [專神明之敬, 奉燔瘞於郊宮。] 顏師古曰: “燔, 祭天也; 瘞, 祭地也.” 제수용품을 가리키기도 한다.

164) 수방(隨方): 상황에 따른다.

165) 찬인(贊引): 의식을 돕고, 인도하다.

166) 종쟁(琮琤): 의성어(擬聲語)로 ‘쨍쟁. 땡땡’ 정도의 의미.

167) 보(步): 고대 길이의 단위로 현대 미터법에 의하면 160cm 정도이다. 당대 이래로 건설 등의 측량에 쓰였던 영조척(營造尺) 도량형 제도에 의하면 5척을 1보로 하였다. 1척이 약 32cm이니 1보는 160cm 정도의 길이이다.

168) 변두(籩豆): 제사와 연회 때 상용(常用)하던 예기(禮器)로 대나무로 만든 것을 변(籩), 나무로 만든 것을 두(豆)라 하였다.

169) 유시(維時): 이 때, 당시.

170) 위자(圍子): 금위(禁圍)라고도 한다. 황제의 수레를 둘러싼 위병(衛兵)들로 만든 담을 가리킨다.

171) 선소(仙韶): 선소곡(仙韶曲). 일반적으로 궁정 악곡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인다.

172) 문례(文禮): 예를 행함에 있어 그 법도를 잃지 않는 것. 혹은 그 예의(禮儀) 제도를 가리키기도 함.

173) 정요(鉦鏡): 구리로 만든 징. 동라(銅羅).

回青城。純音直徹雲霄外，疑是鈞天¹⁷⁴)慶樂聲。”上幸端誠殿，宰執百官拜舞慶禮成，樞臣“宣制¹⁷⁵)班庭¹⁷⁶)盡鞠躬，履茲新慶與卿同，臣心歸美將何報，願祝君王壽億穹。”百官班退。“法宮¹⁷⁷)邃密護重簾，跪執牙牌奏解嚴，班捲駕行蓮炬煖，禮容猶自聳觀瞻。”天明，儀仗鹵簿甲騎捲班回麗正門。上登大安輦，左右二御藥侍立，前者教樂所伶工作樂，後有鈞容直及部伍鼓吹後從。上升輦，輦前侍中一員奏升降承旨。“紫壇徹復駕還宮，黃牒¹⁷⁸)前期命侍中。密護袞衣升降處，輅前承旨示恩隆。”五輅從輦後回麗正門，上內門裏降輦，平章宰執百官立班於門下伺候。上登樓臨軒，立金雞竿放赦，如明禮禮同。太皇“垂簾設幄內庭旁，慈母親來看嗣皇¹⁷⁹)，忽奉起居仍問勞，往來互遣貴貂璫¹⁸⁰)。”“欽看回鑾¹⁸¹)報六宮¹⁸²)，內東¹⁸³)簾幙舞翔龍。大安輦上瞻天表¹⁸⁴)，熙事圓成尙正容¹⁸⁵)。”

174) 균천(鈞天): 구천(九天)의 하나로 하늘의 중앙을 가리킨다. 후에 하늘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확대되었다.

175) 선제(宣制): 제왕의 조명(詔命)을 선포하다.

176) 반정(班庭): 반정(班廷), 조정(朝廷)이라고도 한다. 조회를 할 때 반드시 줄을 지어 나뉘었기에[列班] '반정(班庭)'이라 한 것이다.

177) 법궁(法宮): 궁실(宮室)의 정전(正殿)으로 제왕이 정사를 처리하던 곳.

178) 황첩(黃牒): 송대(宋代) 하급 관리에게 위임하는 문서.

179) 사황(嗣皇): 왕위를 계승한 제왕(帝王).

180) 초당(貂璫): 환관(宦官). 담비 꼬리(貂尾)와 금은(金銀)으로 만든 귀고리(璫)는 고대 시중(侍中) 및 상시(常侍)들의 관식(冠飾)이었다. 한대(漢代) 응소(應劭)의 《한궁의(漢官儀)》 권상(卷上)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중당시(中當侍)는 진대(秦代) 관직이다. 한(漢)이 흥함에 사인(士人)을 써서 은귀고리에 왼쪽으로 담비 꼬리를 장식했다. 광무(光武) 이후 환관들이 전담하였는데 오른쪽으로 담비 꼬리를 하고 금귀고리를 썼다[中當侍，秦官也。漢興，或用士人，銀璫左貂。光武以後，專任宦者，右貂金璫。]”

181) 회란(回鑾): 제왕이나 왕후가 밖에 나갔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것. 이전에 제왕 및 후비(后妃)의 수레를 난가(鑾駕)라고 하였다. 이에 제왕이나 왕후가 밖에서 돌아오는 것을 일러 회란(回鑾)이라 하였다.

182) 육궁(六宮): 고대 황후의 침궁(寢宮)으로 정침(正寢)이 하나, 연침(燕寢)이 다섯으로 합쳐서 육궁이라 하였다.

183) 내동(內東): 내동문(內東門). 황태후 이하 거처를 구별하는 궁성 안의 문.

184) 천표(天表): 제왕의 얼굴. 용안(龍顏).

185) 정용(正容): 단정하고 엄숙한 얼굴과 태도.

〈參考文獻〉

- 孟元老(1956),《東京夢華錄外四種》,上海:上海古典文學出版社。
- 吳自牧 著·梅原郁 譯註(2000),《夢梁錄-南宋臨安繁昌記》1-3,東京:平凡社。
- 南宋 吳自牧·周密 撰·傅林祥 注(2001),《夢梁錄·武林舊事》,濟南:山東友誼出版社。
- 宋 吳自牧 著·符均·張社國 校註(2004),《夢梁錄》,西安:三秦出版社。
- 劉 坤 等 主編(2003),《夢梁錄外四種》,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
- 鄧之誠 注(1982),《東京夢華錄注》,北京:中華書局。
- 入矢義高·梅原郁 譯註(1996),《東京夢華錄-宋代之都市と生活》,東京:平凡社。
- 伊永文 箋注(2006),《東京夢華錄箋注》,北京:中華書局。
- 姜漢椿 譯注(1998),《東京夢華錄全譯》,貴州:貴州人民出版社。
- 王明蓀 編撰(1983),《東京夢華錄》,台北:時報出版公司。
- 黃 驗 注(2004),《圖解東京夢華錄》,台北:實學社。
- 孟元老 著, 김민호 譯(2010),《東京夢華錄》, 서울: 소명출판。
- 徐 兢 著, 조동원 等 譯(2005),《고려도경》, 서울: 황소자리。
- 沈 括 지음, 최병규 譯(2002),《몽계필담》, 서울: 범우사。
- John W. Chaffee 지음, 양중국 옮김(2001),《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 서울: 신서원。
- 자크 제르네, 김영제 옮김(2003),《전통 중국인의 일상생활》, 서울: 신서원。

〈中文提要〉

《夢梁錄》二十卷,宋吳自牧撰。自牧錢塘人,是書全用《東京夢華錄》之體,以紀南宋郊廟宮殿,下至百工雜戲之事。周密《武林舊事》序云:“欲如孟元老夢華而近雅,固謂夢華錄,不足於雅馴矣。而自牧是書之俚俗,殆有甚於夢華錄者。然其言得自見聞,頗為質實,典章文物於是可徵與武林舊事詳略,互見實可資,以稽考故事。首有自序云:‘緬懷往事,殆猶夢也。故名夢梁錄。’”末署甲戌歲中秋日書。考甲戌為宋度宗咸淳十年,其時宋未亡也。意甲戌字傳寫舛訛歟。卷五,下裏收錄〈駕回太廟宿奉神主出室〉,〈駕宿明堂齋殿行禮祀禮〉,〈明禮禮成登門放赦〉,〈郊祀年駕宿青城端成殿行郊祀禮〉等內容。

關鍵詞: 夢梁錄, 吳自牧, 臨安, 杭州, 南宋.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30.	2014. 10. 20.	2014. 10. 31.	2014. 11. 7.	2014. 11. 30.